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겸 주간 전태현
편집장 강민홍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송재봉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49호 1995년 9월 26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지면안내

3면(심층보도)
부당해고에 맞선 직원의 항변- 결혼을 이유로 해고당한 용인캠퍼스 여직원 김은주양 사건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4면(학술기획)
김주석 사후 1년, 북한은 지금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의 경과를 살펴보고 현시기 북한식 개방정책을 점검한다.

6면(생활문화)
흔들리는 교내특강
교내특강이 두번째 연기됐다. 94년이후 수강인원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원인을 진단한다. 어학연수, 배낭여행의 증가로 위기에 처한 교내특강의 살길과 방향전환을 점검한다.

7면(문화)

밀려오는 일본문화, 우리는 지금 - 만화가게에서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화의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 개방을 앞둔 지금 우리는 일본의 문화산업을 걸러낼 준비가 부족하다.

8면(사회보도)
민심기행, 학살자의 고향 대구에 가다 - 5·18책임자들의 고향, 대구에서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면(사회기획)
5·18특집기획
9월이 돼도 5·18의 열기는 뜨겁다.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았다.

10면(대학기획)
중앙교과과정 심의위원회 논의내용 - 96학번부터 실용영어 총 8학점과 교양학점 총 24점 이수가 적용되고 전공 + 복수/자유/부전공은 단과대학별 의견을 조정하여 97학년도부터 실시된다.

"5·18 공소시효 있을 수 없다"

동맹휴업·거리 시위 확산 조짐

5·18불기소 처분 반대와 학살자 처벌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학생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 18일(월)부터 동아리연합회 회장 엄형식(서양·불어 3)군이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루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단식장 주변에서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동·서양어대 학생회장단까지 지난 22일(금), 23일(토) 각각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22일(금) '5·18불기소처분 반대를 위한 애국외대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이문동 일대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대치, 김필완(법·법학 1)군이 연행되고 최루탄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곧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4백여명의 학생들의 동참으로 교문진입로를 가득 메웠으며 경찰에게 연행된 김군을 돌려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자진 해산하기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아 본교 학생들의 5·18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5·18 불기소 처분 반대와 학살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박재성(동양·중국어 1)군은 "학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를 용서해서는 안될 것 같다"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고 "처음이긴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용인캠퍼스에서도 단대별로 이뤄지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곧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캠퍼스는 모두 한총련 1백개 학교가 참여하게 될 29일(금)·30일(토) 양일간의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박병수 기자

2학기 정총 이번 주에

서울 29일 5·18 기소투쟁 … 용인 25일 체전과 함께

양캠퍼스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이다. 서울캠퍼스는 5·18 기소촉구 투쟁을 중심으로, 용인캠퍼스는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용인

학생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총회와 몸일시대를 준비하는 대단결의장 '95 왕산체전 개막식이 오늘(25일)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질의응답의 순서가 강화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총학생회 사업으로 △초청강연 등의 학술행사 △교풍 △1학기 결산, 학원자주화투쟁 △5·18투쟁 △박창희교수 공판 진행사항 등이 보고된다. 또한 총학생회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순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교 안병만총장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하용갑(정책·행정 4)군이 내빈으로 초대된다.

정기총회와 관련,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임성은(동학·아랍어 4)군은 "이번 정기총회선 정세보고를 삭제하고 발표시간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대신 학우들이 자료집을 꼭 숙지하고 참석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화봉송으로 시작될 체전은 오는 28일(목)까지 용인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된다. 종목으로는 족구(대운동장)·여자발야구(소운동장)·줄다리기(대운동장)·씨름(학생회관 씨름장)·농구(학생회관 코트)·축구(대운동장)이고 체전 마지막날에는 마라톤이 실시된다.

개막식에는 가수 이은미의 축하공연, 28일 폐막식에는 '꽃다지'의 공연이 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되돌아보는 슬라이드상영과 함께 진행된다. 또한 폐막식에는 자봉단과 심판진 인사와 종목별·응원전·최우수선수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

서울캠퍼스 29대 총학생회 2학기 진군식이 동맹휴업에 들어갈 오는 29일(금) 5·18 학살자, 처단을 위한 애국외대 투쟁선포식과 아울러 오후 4시 노천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정기총회가 대동의 장, 화합의 장으로 승화됐던 것과는 달리 각종 공연을 배제한 채 진행될 이번 진군식은 2학기 출범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학대회 내용보고·2학기 사업계획·학자 보고 △5·18투쟁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성철(법·법학 4)군은 "정기총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2학기 총학생회의 출범을 알리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나 일정상 의결기구로서의 정기총회를 성사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5·18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투쟁이 진군식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라며 2학기 출범식이 약소화된 배경을 밝혔다.

곽근영·김재경 기자

빈의자

'입'이 열린다

▲'역사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과연 그러한가.

신군부의 무차별 학살에 저항하면서 총을 들었던 80년 5월 광주항쟁은 분명 정의였고 신군부의 집권은 불의였다는는 것은 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15년이나 지난 지금 승리는 커녕 8월 16일 공소시효는 학살자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부여했다. 여기서 몇몇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앞에서의 평범한 명제가 한국에서는 '불의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정의는 패배할 수도, 왜곡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살될 수도 있다'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빠졌고, '광주정신이 죽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었다. 광주정신은 8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의 독선적인 생각이었을 뿐.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광주'를 살고 있다.

▲지난 7월 18일 검찰이 5·18관련자들에 의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자 예상외로 국민적 반발이 해일처럼 세차게 일어났다. 12·12 쿠데타 당시, 민중들이 불만은 있으나 총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군부독재의 요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앎을 넘어선 행동에 의해, 비관을 넘어선 희생에 의해 기나긴 굴종의 시대를 마감하려 했던 광주항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과 학생, 노동자들로부터 불붙은 5·18 공소시효 인정을 반대하며 특별법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정치사회적 시안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현을 극도로 자제해온 교수들과 성직자들에게로 확산됐다. 심지어 민자당의 광주 전남지역 일부 지구당위원장들이 제정불가라는 당의 입장과는 달리 5·18 기소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 시대의 '무거운 입'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총학생회연합에서는 29, 30일 전국차원의 동맹휴업 등 '총궐기대회의 날'로 잡아 '5·18 책임자 처벌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처럼 광주항쟁이 일어난지 15년이 지났지만 '광주'는 또다른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다. 진리는 숨리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실현하는 일이다.

박현숙

박교수 6차공판, 증인심문 진행

공소장 내용 일부 허위 밝혀져

지난 18일(월) 오후 2시 서초법원에서는 박창희 교수 6차공판이 있었다.

6차공판에서는 5차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박교수의 큰형인 박문희씨와 일본유학 당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하찬식씨, 일본에서 알게된 은성비이오사장 우창정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희 교수를 고발했던 박현서(한양대 사학과)교수가 나왔다.

저녁 8시30분까지 6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공소장의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들어맞지 않는 등 박창희 교수의 혐의가 일부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애초부터 "조작사건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오는 10월 2일(월)에는 7차공판이 열리는데 이날도 증인심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한승주 기자

세·계·화·의·산·실·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출판 「세계문학총서」 시리즈

외대 교수들이 번역한
세계 문학의 진수!

• 전 24개국 언어권 중 1차분 8개국 작품 출간 •

1 잘려진 머리 아키리스 먼드크 지음 최옥영 옮김/값 6,000원
금세기 영국대표 작가이며 노벨상 후보에 지주 오르는 먼드크가 부유층의 퇴폐적인 분위기를 묘사한 문제작

2 검 역 볼콘자비르 박시모프 지음 이종진 옮김/값 7,000원
태만하거나 무기력한 인간들이 얻은 특권에 대한 분노와·근면한 사람들의 불우한 상황을 과거 이야기를 통해 암시하고 양측의 갱생을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다는 내용

3 착한성인 마누엘 外 밀겐 델 우나무노 外 박철 옮김/값 6,000원
세계적인 석학 우나무노의 자서전적 소설과 노벨상 수상자 셀라리 동부한 지식과 천재적인 언어로 구사한 단편 모음

4 시간과 바람 에리포 베리에루 지음 이수덕 옮김/값 7,000원
시간과 바람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부조리, 모순, 투쟁, 모험, 사랑이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지는 역사소설

5 숲속의 동화 外 미하일 사도베아누 外 김성기 옮김/값 7,000원
루마니아 최고의 소설가 사도베아누의 작품 '숲속의 동화'와 루마니아의 유명 작가들의 단편 모음

6 푸른수염의 아내들 필립 룬델라 지음 김규진 옮김/값 6,500원
여러번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된 룬델라가 소련군 개입으로 인한 체코민주화 과정의 좌절로 주인공이 존재위기감 속에서 사랑과 섹스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

7 산 시 로 나츠메 소오세키 지음 최재철 옮김/값 6,000원
일본 근대문학사상 가장 대표적인 지성파 작가 나츠메 소오세키가 그려낸 청춘과 사랑의 교향소설

8 무지에 의한 단죄 장 컬벗 지음 김영애 옮김/값 6,000원
두 번 이상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별난작가 장 컬벗의 작품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솔직하고 적나라하여 잔인하게 묘사한 불교의식 소설

외국어 사전
• 韓佛辭典 불어불문학회 편/1494면/정가 12,000원
• 伊韓辭典 이탈리아과 편/1810면/정가 18,000원
• 韓西辭典 강선영 편/736면/정가 15,000원
• 現代인도네시아어-한국어사전 안병호 편/1,244면/정가 22,000원
• 泰韓辭典 태국어과 편/1700면/정가 30,000원
• 터어키-한국어 사전 서재만 편/367면/정가 6,000원
• 페르시아어-한국어 사전 김정식 엮음/1640면/정가 30,000원
• 스웨덴-한국어 사전 김상달·변광수·Gustafsson 공저(근간)
• 네덜란드어-한국어 사전 김경중·Paula Kim-Koeck 공저(근간)
• 힌디어-한국어 사전 이정호 편(근간)

실용외국어회화 시리즈
• 중국어 회화 우인호 지/9,500원(테이프1개 포함)
• 베트남어 회화 김기태 지/11,000원(테이프2개 포함)
• 인도네시아어 회화 전재련 지/11,000원(테이프2개 포함)
• 폴란드어 회화 정병권 지/7,500원

통역대학원입시가이드
통역대학원 수험생을 위한 기출경개 모음집
통역대학원 편/20,000원 (테이프6개 포함)

어 문학
• 세계주요언어 변광수 편/20,000원
• 미국문화에 읽힌 미국영어 김재린 지/4,000원
• 내가 본 러시아 문학 한국노어노문학회 편/12,000원
• 초급·중급 인도네시아어 강독 서반아어과 편/7,500원
• 중급 에스파냐어 작문 서반아어과 편/7,500원
• NOVELA BRASILEIRA 이승식 편/5,000원
• 중급 네덜란드어 강독 한국현 편/4,000원
• 중급 네덜란드어 문법 김경중 편/8,000원
• 외국인을 위한 헝가리어 박수영 편/12,000원
• 초급 일본어 일본어과 편/6,000원
• 중급 일본어 I, II 일본어과 편/각권 5,000원
• 일본어코스 일본어과 편/4,000원
• 현대 인도네시아어 회화 신영호 지/5,000원
• 인도네시아 어학개론 인영호·전태현 공저/10,000원
• 기초 아랍어 김홍선 지/4,000원
• 아랍어 구문어체 비교론 오행근 지/6,000원
• 시청각 타이어 태국어과 편/6,000원
• 기초 베트남어 김기태 지/6,000원
• 베트남어 발음연습 김기태 편/8,000원
• 힌디 입문 김무조 지/7,000원
• 기초 터키어 문법 서재만 편/7,000원
• 이란어 회화 정병욱 편저/7,500원

인문·사회과학
• 과학사 서설 박상래 지/5,000원
• 아랍문화사 김홍선 지/3,500원
• 이슬람 입문 김장하 편/7,500원
• 동남아사 입문 김기태 엮/7,000원
• Essential Readings in Macro Economics and Business Cycle Theory 이종실 편저/18,000원
• -복지의 나라- 스웨덴 변광수·김현옥·구재복 공저/7,000원
• 중국의 실체와 경제 조희천 편/9,000원
• 미국 현대경치의 이해 차성원 편/7,000원
• 일제하의 동남아 김영희 추 편 공저/7,000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전역: 961-4143 팩스: 962-7122

사 설

대학과 문화

모름지기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와야 하듯이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 여자답지 못한 여자를 자주 보게 되는 것처럼 대학이 대학답지 못한 현상으로 가득차는 것을 보고 탄식과 우려의 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나 남자답지 못한 남자, 여자답지 못한 여자가 우리의 캠퍼스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주변적 현상인 것처럼, 대학 캠퍼스가 함성과 구호를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지난 금요일 오후였다.

금요일 오후 용인캠퍼스에서는 놀랄만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다름 아닌 고전 음악 동아리 주최 정기 초청 연주회였다. 금년으로 3회째인 본 행사에는 국내 최정상급인 삼내악 연주단인 「차르텟21」이 초청되었다. H대학 음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주단은 우리 학생들에게 하이든과 라벨과 드보르작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였다. 3백여명의 학생들이 초가을의 늦은 저녁까지 자리를 메우고 음악에 심취하였다.

고전음악 동아리는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순수 음악 동호회였다. 악기를 한 가지씩 다룰 줄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저 듣기 위해 참여한 학생도 있었다. 이들의 학과도 이태리어과, 철학과 등 다양하였다. 이런 문화적 모임은 고전음악 동아리 외에도 고전기타반, 미술 동아리, 사진 동아리, 서예 동아리 등도 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졸업 후 미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화가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도 견실하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순수한 문화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대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대학문화」하면 젊음과 힘을 우선 연상한다. 어설픈 헤프닝, 거친 매너도 떠올린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문화의 본질과 그 형성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피상적이며 상투적 범주화로 경계해야 한다.

먼저 대학 문화는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를 완성시켜주는 영양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식의 전수와 창조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라면, 문화적 활동은 교육과 연구를 촉진시키는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분명 이것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고시에 합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몰인격과 몰교양의 황폐한 지식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문화는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학문화는 무엇인가? 대학의 문화는 강건한 신체와 품위있는 교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축구, 배구 등 운동 동아리들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협동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강건성 뿐만 아니라 사회성, 공정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고전음악 동아리 같은 서클 활동을 통해서 감상과 이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교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생적 대학문화가 더욱더 필요해진다.

그러나 대학문화가 대학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학이 한 지역사회에서 갖는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학문화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용인 캠퍼스가 자리한 용인 지역은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용인캠퍼스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파르텟21」의 연주회가 외대생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용인지역 주민들에게도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시향 같은 대규모 관현악단도 초청하여 넓은 캠퍼스에 선율이 가득차는 열린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용인캠퍼스는 경수지역의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 효과는 몇억짜리 광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운동팀으로 이름을 내는 학교가 있듯이, 우리는 정기음악회, 정기 연주회, 정기 전시회 같은 대학문화로 캠퍼스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외대는 세계화의 선두 주자로서 벌써 40년을 뛰어왔다. 세계화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문화」다. 이제 우리 대학 문화의 차별성을 창조해낼 때가 되었다. 이것은 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생들의 호응도 중요하다. 학교는 대학의 이름에 걸맞는 완벽한 연주시설과 상설 전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내 최정상급 연주단이 연주하는 동안 쥐가 뛰어나오고 말지 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부실해서야 말이 되는가? 학생들도 이러한 문화 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지식만을 전수하는 수동적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자. 지식은 대학인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지성인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문화다. 이제 우리는 차별성있는 외대 문화를 가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일류화의 첫 걸음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라는 공동체 삶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채택된 원고에는 1매당 1천5백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OEDAE,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원고에 소속 과·학년·이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합시다.

교육과정 개정 학생회가 맡아야

2학기 중간 고사가 끝나면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학생회이다. 각 과, 단대, 총학생회 선거가 치뤄지면서 각 후보들이 이전의 학생회를 향해 갖가지 기발한 문구들을 사용하여 독설을 뿜어낸다. 학생회 선거를 한 번쯤 지켜 본 학생이라면 그 다양한 독설들의 핵심이 '학생회와 학우들간의 괴리'라는 것 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괴리가 학생회가 진정 학생들의 학문적·문화적·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사실 또한 말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그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한 창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정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니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각 단위 학생회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예술제·학술제·홈 커밍데이 등으로 빽빽하게 잡혀있는 2학기 사업 일정이 그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의 학생회가 대학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고민과 연구를 전혀 해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시작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고, 학생들도 개정안이 공개될 때까지 그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지만 평소에 학생회가 교육과정에 대한 학우들의 여론을 꾸준히 수렴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각 과별 전공과정 개정안이 교수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전체 교양과정·실용영어, 그리고 학사제도 개정안에 대한 각 단대 교수들의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교육의 대상이자 목적인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조차 제 목소리를 갖지 못 한다면 '교육자치'라는 구호는 더욱 소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은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져야 할 것이다.

5.18 처리 문제로 각 단위 학생회장들의 단식 돌입이 이어지고 있다.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학생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말했듯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처럼 다양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응해 각 학생회가 서둘러야 할 것과 서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싶다. 전자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상대로 한 여론 작업이고, 후자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개정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작업이다.

이충국 〈서양·영어 3〉

5·18 양심에 따라 처리하길

5·18 문제 해결에 대한 열기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정부의 처사는 한마디로 한심하다. 21일(목)은 시립대에서 '5·18 학살자 처벌 및 특검제 실시'를 주장하며 거리 행진을 강행하려는 시립대생 3명을 연행하여 구속단계까지 가다니 22일(금)에는 본교생들이 이문동 일대 주민들과 5·18문제에 대해 함께 하기 위해 가두 행진을 벌이려 하자 이를 저지했으며 충돌과정 중 법학과 95학번 한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항의시위로 저녁 8시쯤에 풀려 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계속적인 시위 방해와 학생들의 연행은 5·18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왜 우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지 이러한 우리들의 집회가 과연 국가의 안녕에 중대한 해를 미치기는 하는지. 아니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앞선다. 또한 지금의 김영삼대통령이 한때 야당의 당수로 있었을 때의 발언과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있는 시점에서의 5·18에 대한 발언이 너무도 달라 혹시 대론 시립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의 보수 정치세력 또한 자신의 이익에 따라 5·18문제에 대한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쓸데없는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5·18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달리달리에 의해서만 5·18 문제의 중요도가 판가름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5·18 문제의 완만한 해결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할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10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특검제가 안건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이라면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담국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마창규 〈법·법학 1〉

화장실 휴지 비치 신경써야

나는 며칠전 신문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으로 측정한 국민일인당 부가 12만 3천달러로 세계 44위라는 기사를 읽었다. 이것은 종래의 단순한 생산력이 기준이 아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토대로 한 보다 장기적인 국부측정법이다. 알다시피 자연자원이 극히 빈약한 우리가 세계 192개국중 44위라는 수치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의 인적자원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효율적인 국부의 증대를 위해 인적자원 양성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고급인력의 주된 양성지라 할 수 있는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물론 많은 대학들이 내년도 교육시장개방 등 교육의 세계화·경쟁화의 물결 속에서 앞다투어 여러 계획안을 내놓은 실정이고 본교 또한 외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교육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번 12일자 학보에서 본교의 계획안 중 하나인 '외국학중합연구센터 올해안 착공'이 실렸다. 이것은 외대를 지역학의 메카로 재부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발전적이고 고무적인 소식이다. 정부의 지원 또한 기대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이지 않지만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너무 경쟁력만 중시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발전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모두들 불편은 느끼왔지만 지적하기에는 너무 작아 그냥 방치해온 것을 하나 말하고 싶다. 바로 학교 화장실의 문제이다. 요즈음 웬만한 공공건물 화장실에 화장지정도는 비치돼 있다. 그런데 본교는 화장실 자체의 낙후성도 문제지만 최소한 화장지도 비치하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의 편의에는 무관심하다. 내가 알기로 거의 모든 대학이 그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무슨 연구센터 건립처럼 몇백억의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고 화장실을 다 뜯어 고치자는 얘기도 아니다. (20년은좀 되면 본교 시설의 낙후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포기하게 된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화장실 앞에다 친절하게도(?) 일일이 부착해둔 화장지 유료 자판기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왜 무료비치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가기에도 정신이 없다. 작은 부분이지만 학생들의 편의도 고려하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은 어떨지?

윤미정 〈동양·터어키어 2〉

도서관 사서가 떠들어?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해주는 요즘, 독서하기도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인 듯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4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나는 보다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게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개가식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개가제여서 그런지 가끔 도서관의 사서들이 답답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며칠전 도서관 2층에서 사전을 보고 있던 나는 조용한 도서관을 울리는 큰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적인 전화를 하고 있는 사서의 목소리였다.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행동들이 꽤 오가기는 했지만, 그런 큰 목소리를 도서관에서 들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서의 전화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준비하는 것같은 여러통의 전화와 심지어 주식시세까지 묻는 그런 사적인 전화를 걸 수 있는 건지, 아니 그렇게 큰 목소리로 통화할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러웠다. 불쾌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나온 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친구 또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요즘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학교도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같기도 했는데, 그런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또 다시 도서관을 찾는다.

김유미 〈사범·불교 4〉

복사기 카드화 실질적 도움 안돼

2학기 개강과 함께 우리들 눈에 자주 띈 대자보중 백지 대자보

4천억을 북한 동포에게

주제: 전쟁이래 최대 참상을 입은 북한 동포들에게

에이 뻥이겠지 -
-L 94 CIA요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 need
- L 에이레네-

최대참상, 근데 콜레라는 왜?
-말라리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착한애-

그러니깐 통일하자니깐
-잡은 손-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 비리 감시자
-95 광주시민-

굳세어라 한민족 힘내라
-금순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인도어과 거지-

우리도 수해물품 보냈시다
-북한쌀 먹은 아해-

과연 최대 참상일까?
-명관-

에서 한 가지씩 선정하여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를 완성시켜주는 영양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식의 전수와 창조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라면, 문화적 활동은 교육과 연구를 촉진시키는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분명 이것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고시에 합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몰인격과 몰교양의 황폐한 지식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문화는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학문화는 무엇인가? 대학의 문화는 강건한 신체와 품위있는 교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축구, 배구 등 운동 동아리들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협동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강건성 뿐만 아니라 사회성, 공정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고전음악 동아리 같은 서클 활동을 통해서 감상과 이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교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생적 대학문화가 더욱더 필요해진다.

그러나 대학문화가 대학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학이 한 지역사회에서 갖는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학문화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용인 캠퍼스가 자리한 용인 지역은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용인캠퍼스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파르텟21」의 연주회가 외대생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용인지역 주민들에게도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시향 같은 대규모 관현악단도 초청하여 넓은 캠퍼스에 선율이 가득차는 열린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용인캠퍼스는 경수지역의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 효과는 몇억짜리 광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운동팀으로 이름을 내는 학교가 있듯이, 우리는 정기음악회, 정기 연주회, 정기 전시회 같은 대학문화로 캠퍼스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외대는 세계화의 선두 주자로서 벌써 40년을 뛰어왔다. 세계화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문화」다. 이제 우리 대학 문화의 차별성을 창조해낼 때가 되었다. 이것은 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생들의 호응도 중요하다. 학교는 대학의 이름에 걸맞는 완벽한 연주시설과 상설 전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내 최정상급 연주단이 연주하는 동안 쥐가 뛰어나오고 말지 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부실해서야 말이 되는가? 학생들도 이러한 문화 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지식만을 전수하는 수동적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자. 지식은 대학인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지성인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문화다. 이제 우리는 차별성있는 외대 문화를 가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일류화의 첫 걸음이다.

□ 외대학보를 읽고

나는 올해 대학에 첫 발을 딛은 새내기이다. 현재 몹담고 있는 동아리가 두군데이고 과 소모임도 하고 있다.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 있다면 지난 외대학보 648호에 실렸던 회원의 잦대 부족이라는 문제다. 기사에서처럼 내가 있는 동아리에도 등록된 회원은 많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활동할 것처럼 당당히 이름을 쓰던 신입생들도 몇달이 지나다보면 동아리 방에서는 그 종적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분명히 동아리의 내적인 면과 신입생들이 선호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읽었던 결론대로 동아리만이 변화해야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다면 동아리도 적절히 변해야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동아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활동방식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부터 바뀌었다. 역시 쉰세대(?)보다는 신세대에 가까운 사람들로 말이다.

나는 아직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입장이라 동아리들의 전반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름을 회원 명부에 버젓이 올려두고 나오지 않는 동기들을 보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 동아리에 들었다지만 기능의 숙달만이 자기 발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일까.

조현진 〈서양·독일어 1〉

—고 침—

지난주 648호 흡산의 소리 (정부의 5·18 불기소 한계 스스로 드러내) 필자를 방철기(동구·루마니아 4)군으로 고칩니다.

□ 특별기고 - 실용영어, 어떻게 시행되나

"영어가 하고 싶도록 만들겠다"

학급당 인원 축소·전밀제로 질높은 교육 추구

김 재 민
〈본교 영어과 교수〉

국가적으로도 세계화 추진에 전력하고 있지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의 구호처럼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은 수없이 나가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만이 따로 살수도 없고 따로 살만한 이유도 없다.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려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인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은 고립을 면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본교 졸업생은 무슨 과를 졸업하건 영어를 아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해 본다. 영어권에 들어가서도 말하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또 우리 통역대학원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으로 졸업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는 외국어이기보다 우리 외대 졸업생에게는 제2의 국어로 자리잡아 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우리 대학은 새시대에 맞는 특색있는 일류대학이 될 것이다.

본교가 영어를 교육과목으로 정하고 1·2학년 4개 학기에 주당 3시간씩 12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다. 영어를 잘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대학에서 이만한 시간을 할애받는다는 것은 그 장점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영어의 4가지 기술인 듣기와 말하기, 읽기·쓰기를 지혜롭게 가르치며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열망이 높다면 완전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교수법이 고안되어 실현되었다. 문법 번역을 통해서, 자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만 쓰면서, 쉬운책을 다독 등의 방법이 시도되다가 영어는 듣고 말하기가 위주가 되고 다음에 읽기와 쓰기로 연결지어져야 한다는 교수법이 찰스 프리스 교수의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란 책에서 제시되었다.

Audio-Lingual Method란 이 방법은 적절한 문형을 선정하여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그 문형에 여러가지 단어를 갈아넣으면서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다. 말을 전연 못했던 "교육에 어느정도 적극적인 시도를 권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앞있던 문형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 참 언어능력은 터득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학자들은 의견이 교환되며 대화가 가능한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졸만한 교수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행동을 통해서 외국어를 체득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Total Physical Response 또는 TPR라는 이 방법은 들어서 행동함으로써 듣는 능력이 뒤따른다. 표현능력으로 쓰기가 먼저 오고 말하고 싶은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을 때 저절로 말은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한 학급의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선생이 한사람 한사람을 개인으로 볼 수 없고,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15명에서 20명이면 이상적이지만 너무 많은 학급수가 생겨 교실부족 현상과 많은 선생님들의 충원문제를 안게 된다. 본교가 25명에서 30명으로 정한 것도 대단한 진전이다.

일주일에 만나는 회수는 많을수록 좋다. 다섯번이면 이상적이지만 월·수·금, 또는 화·목·토에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도 이상적인 방법이다. 1시간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의 예습이 따라야 한다. 적어도 그날 내용을 본토인의 음성으로 녹음된 테입을 듣고 충분히 숙지하고 와야 한다. 예습과 복습시간을 생각하면 학생은 매일 영어를 두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선생의 기능은 학생이 영어가 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생각하고, 영어를 내재화하고, 습득해 가는 길을 터득하도록 도와 주기만 한다면 훌륭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늘어나는 학급수를 수용할 교실이 필요함으로 전일제 교육과 토요일 근무가 필요해 질 것이다. 학생과 선생 직원이 이 사항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성공이 기약될 수 있다.

문화용달샘

새 책

박성봉 지음

대중예술의 미학

본교 출신 박성봉(스웨덴 79)씨가 대중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과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책을 썼다.

그동안 문화예술에서 서자취급을 받았던 대중문화를 과학적으로 인식과 미학적 접근으로 탐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오랫동안 문화 예술론에 점착해 있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데 이론적 대안의 제시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나 9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요구를 채워 줄 것이다.

동연·9천원

민화이야기

윤열수 지음

우리 겨레가 걸어 왔던 삶의 여러 고비를 고스란히 함께 해 온 평민의 그림 민화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활이 담겨 있다.

민화의 의미 중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어긋남 인식시키기 위해 민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충실히 담고 있다.

민족예술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디자인 하우스·9천 8백원

공연·콘서트

'95 청소년 문화제 '초록꿈의 노래'

천주교 서울대 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95 청소년 문화제 '민들레 합창' 제2회 공연 '초록꿈의 노래'(총연출 박인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을 향락적 소비문화로 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과 참된 놀이문화 보급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병관(공영방송 아나운서)씨의 사회로 사물놀이, 탈춤과 어머니 노래패, 지역 청소년이 출연하고 권진원, 노찾사, 정태춘, 노래마을, 신형원씨 등이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동물원 콘서트

'흐린 하늘에 편지를 써' '사랑했지만' 등 대학인의 애창곡을 다수 발표했던 동물원이 활동재개 첫 콘서트를 연다.

5집 발표이후 2년만에 첫 콘서트로 오는 7일(토)부터 9일(월)까지 문화일보홀에서 그간의 발표곡과 올 10월 발표할 6집에 실릴 신곡도 함께 선 보인다.

신곡으로 전라리 풍의 포크발라드 곡 '널 사랑하겠어', 얼터너티브 록 '사막을 건너는 법' 째즈풍의 '산다는 것은' 이 불러질 예정이다.

문의: 3272-2334

영 상

임권택 영화제

오는 30일(토)부터 10월 6일(금)까지 서울 종로 5가 연강홀에서 '임권택 영화제'가 열린다.

1980년작 '씨앗'로 개막하는 회고전에서는 '씨받이' '서편제' '태백산맥' 등 모두 14편이 상영된다. 또 10월 4 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임감독의 작품에 출연했던 영화인과 영화평론가 이효인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임권택 영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94년제 영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임권택감독은 80년대 한국영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결혼이 해고의 사유라니…

대학당국, 패소하더라도 해임 철회 불가 입장
김양, "결혼이 해임사유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92년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을 이유로 해고 당한 본교여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가장 진보적 집단이라 일컫는 대학에서 가장 보수적인 남녀차별이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경과

용인캠퍼스 노조 전임자로 있던 김은주(25세)양은 지난 6월 4일(일) 결혼했다는 것을 이유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6월 19일(월) 사전통보없이 해임통보를 받았다.

대학당국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만 30세를 정년으로 하며,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다'라는 90년 단체협약당시 상근사환을 사무보조원으로 명칭변경하면서 노사간 합의한 내용의 조항이다. 2년의 유효기관 만료로 지난 92년 단체협약에서 결혼퇴직규정이 사라졌고 김양은 92년 7월에 본교에 사무보조원으로 임명된 상황을 볼때 앞뒤가 맞지 않는 퇴직규정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에 김양은 "결혼이 해임사유가 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난 7월 21일(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의 답변을 기다리는 한달여동안 김양은 안병만 총장에게 탄원서를 띄우는 등 노력을 했으나 총무과장은 "비록 법적으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임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지난 9월 2일(토) 지노위는 결혼퇴직규정이 김양에게 적용될 이유는 없으며, 규정이 있고 없건 간에 그 내용만으로도 남녀평등고용촉진법에 어긋난다는 요지로 '김양의 해직은 부당해고 이며 학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지노위의 명령에 전면 불복하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회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중노위의 판결은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한 여직원의 결혼퇴직을 정당화 시키는 90년 단체협약의 내용과 해고의 부당성을 김양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지노위의 답변서, 대학당국의 재심 신청서를 바탕으로 알아본다.

해 설

더이상 부담해고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결혼을 이유로 해고 당한 한 여직원이 석달반동안 복직투쟁을 본교에서 벌이고 있다.

지난 92년 7월 27일(월) 본교에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한 김은주 양(25세)은 용인캠퍼스 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채용돼 노조 소식지인 '우리소식'의 기획 제작 배포 등의 전과정을 담당했고, 조합내 각종 문서수발업무를 수행하던중 지난 6월19일(월) 해임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15일 전의 결혼이었다.

김양의 해고 사유는 9년전 대학당국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90년도 단체협약에 기인한다.

'상근사환을 사무보조원이라 칭한다. 단...경과조치로 정년을 만 30세로 하되 결혼과 동시에 자동퇴직한다(1990 단체협약 제20조 1항)'라는 결혼퇴직규정을 담고 있는 이 조항은 92년 경과 만료로 그 효력을 아미 상실했으며 내용상 법률에 위배된다.

한편, 해고 절차상의 정당성 결여도 부당해고 판정의 한 근거가 된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의한 '전임자의 임면 선보 징계 및 해고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990 단체협약 제20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사전동의 없는 해고를 단행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일(토) 김양이 '7월 제기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90년 당시 단체협약의 결혼퇴직규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규정이다' '전임자의 해임발령에 노조 조합장의 동의가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김양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대학당국에 김양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기본적 쟁점 파악이 잘못된 사안이라며 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제기했다. 당국이 내세우는 근거는 △1990년 단체협약의 노사합의에 의한 체결이라는 점 △사무보조원의 주된 업무가 단순노동에 불과하고, 기혼자나 나이 많은 사람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조합장의 동의 여닌 위임에 의한 해고 등이다.

김양 해고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90년 당시 단체협약의 해석문제와 해고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돼는지 여부다. 김양과 지노위는 내용 자체가 남녀평등고용촉진법 위반이라 하는 반면, 대학당국은 그 효력발생 여부와 체결배경에만 초점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절차상 필요한 '노조의 동의'에 대해서 김양은 "대학당국이 주장하는 위임서의 크기는 사전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조항장의 합의서일뿐이다"라며 당국의 확대해석을 꼬집었다.

대학당국은 김양의 입사전 용인캠퍼스 서무주임이 결혼퇴직규정에 대한 설명을 했고, 김양의 동의도 얻었다 라고 말하는 반면 김양은 "입사후 한달동안은 서울캠퍼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용인캠퍼스 서무주임을 만났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김양 입사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유기찬씨는 "김양의 사안은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사회정의의 다툼이다"라며 "사적으론 김양이 복직되길 바라지만 학교테두리 안의 일이 외부힘에 의해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법보다 권력이 우선되는 사회의 전형을 학원안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가슴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교육공간만큼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기위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촉구된다.

김재경 기자

□ 동구어대 단대분리, 그 역사와 현황

8년째 쳇바퀴…돌리는 대학당국

교수·학생, 장기발전 전망에 공감대 형성
대학당국, "입장 통일돼야 고려하겠다"

동구어대 단대 분리문제, 전 구성원의 논의속에 실질적인 합의도출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 8년동안 계속된 동구어대 단대분리문제는 현실적 가능성 타진을 위한 논의와 연구에서 동구계열의 특수성을 살린 중장기 발전전망의 수립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무엇보다도 대학당국의 명백한 입장표명과 성실한 태도, 의지가 요구된다.

동구어대 학생회는 "현재 동구어대 교수들은 동구계열 5개과에 대한 발전전망의 절실함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동구어대 각 과회장은 학과장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구어대 한 학과장은 "동구계열이 받는 피해가 생기면 대학당국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기구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동구어대 교수들은 지난 학기 교육개선위원회에 동일한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고 더이상의 논의는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대학당국은 "동구어대 교수들과 학생들간의 입장이 동일하게 정리되면 고려해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동구어대 학생회측은 "동구어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학당국에게 달려있고 단대분리에 대한 결정권 또한 대학당국에게 있다"라며 "단대분리 반대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학당국의 태도는 분명히 시정되야 할 것"이라며 대학당국의 합리적인 논리제시를 촉구했다. 동구어대 학생회장 이주남(체코어 4)군은 "지난 22일에 있은 부총장과의 약속에서 부총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라며 "교수와 학생측의 동일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를 피한 것은 시간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동구어대 학생회가 지난주 단대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구어대 단대분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단대분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동구어대 단대분리에 대한 논의가 학생회일꾼사이에서 진행되고 공개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부족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과반에서 만난 한 학생은 "입학하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동구어대 졸업생이 취업이 잘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대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문제, 이는 지난 88년부터 제기, 논의되어 오던중 92년 동유럽 5개 언어학과(폴란드 체코 유고 항가리 루마니아)의 학생회 연합체인 '동유럽 5개어과 학생회 연합·결성을 시작으로 표면화됐다. 이 움직임은 각 학과 5개과 학생총회를 통해 동구어대 학생회장 선거와 동구어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기학생총회에 독립된 단대로써 참가함으로 실질적인 단대분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88년이후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대학당국은 92년도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위한 거교적 특별위원회(특위)'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화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특위는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만으로 구성됐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학생측은 이 특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학생들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92년이후 교육개선위원회와 단과대학제조정위원회 등의 여러 기구를 통한 계속적인 대화속에서 단대분리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이면 용인캠퍼스 자연과학대학이 정보산업공과대학으로 분리되고 사회대가 경상대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학과통합과 단대분리를 통한 단대 기구개편이 진행된다. 대학당국은 단대분리의 취지를 취업에서의 유리함과 교수들의 연구활성 등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군은 "기런 흐름속에서 서대에서 동구어대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대학당국과의 빠른시일내의 협상에서 각 대학 단과대학 개설에 따른 교육부 승인 신청, 그리고 단대분리를 위한 제반여건인 교수진 확보, 예산책정, 행정기구 개편 등 단대분리에 관한 핵심사안들이 논의돼야 한다. 단대분리 이후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전 구성원들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곽근영 기자

"학회·동아리 지원, 수가 너무 많아 해줄 수 없다"

안병만 총장은 지난 20일(수) 열린총장실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사운드 라이브러리 시설의 개선 △어학부 커리큘럼의 개정 △자매결연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총장실엔 중국어과 학생들을 비롯해 외대연극회 및 미식축구부 학생들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열린총장실은 예전과 동일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다.

열린총장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3시간 2학점으로 규정돼 있는 제 2 외국어 수업이 실제로 2시간 정도만 하는 교수들이 많다. 또한 수강변경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총장은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에 의해서 "제 2외국어를 비롯한 모든 교양과목은 2시간 2학점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총장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교무처와 상의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중국어학회와 외대연극회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강의실 이용시간 연장△학회나 동아리들의 공연에 대한 지원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안총장은 "학생처와 상의해서 강의실 이용시간을 연장하겠으며 토·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다. 반면 "학회 및 동아리 지원은 그 수가 너무 많아 해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중국어과 대학원생들이 이번 열린총장실에 참석해 박사과정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생들은 "본교의 박사과정을 모두 6학기의 등록을 해야하나 실제적으로 수업을 받는 기간은 4학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총장은 "대학원에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신통치 않게 대답했다.

그 밖에도 현재 여학생 출산·연수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특별휴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로 △직원불친절 문제 △도서관 장서 증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풍물패 대체공간 마련요구 등이 또다시 논의됐다. 그러나 안총장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확답보다는 단지 "학생처에 알아보겠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안총장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고맙고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정리 답변했다.

오은진 기자

사 령

면
만화부장
김호일(상경·경영 3)

임
대학부장
곽근영(인문·사학 2)
사회부장
박현숙(서학·노어 4)
문화부장
이옥선(서양·영어 4)
사진부장
한승주(정책·행정 2)
대학차장
김재경(법·법학 2)
사회차장
고병권(서양·포어 2)

이상 6명 9월1일자

세계화와 나❷

미래창조·세계도전

다음 중 존대법에 맞는 말은?

1) 선생님, 저에게 하실 말이 계시죠?
2) 선생님, 저에게 할 말씀이 있으시죠?
3) 선생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4) 선생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죠?
5) 선생님, 저에게 하실 말이 있으시죠?

世界化는 內實化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나 의외로 잘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世界化 라는 말이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인다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거나, 외국어를 좀 더 잘 한다거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세계화는 결국 從屬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 문화, 제도, 예법, 情, 근면, 한글…
굳이 '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것 중엔 지키고 발전시켜
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世界化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종속'이라는 반쪽짜리가
되게 할 순 없는 일입니다.

한화그룹은 진정한 世界化를 위해 –
내실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화약/통신/무역/건설부문 (주)한화 한화전자정보통신(주) ■화학/에너지부문 한화에너지(주) 한화에너지프라자(주) 한화종합화학(주) 한화-비스프우레탄(주) 한화포리마(주) 한화소재(주) ■기계부문 한화기계(주) 한화 엔에스케이 정밀(주) 한화지동차부품(주)
■금융부문 (주)제일증권 삼희투자금융(주) 한화파이낸스(주) 제일투자자문(주) 제일경제연구소(주) ■유통/레저부문 (주)한화유통 한화역사(주) 태평개발(주) 한국국토개발(주) ■기타 그룹종합연구소 (주)한컴 (주)한화이글스 (주)경향신문사 학교법인 천안북일학원

김일성 사후1년, 북한은 지금 ②

'실용주의 경제노선' 어디까지 왔나

나진·선봉지역 개발 외국인 투자 우대

대외정책 유연…남북경협 활성화에 도움

북한이 실용주의 경제개혁에 착수한 것은 중대한 변화의 서곡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의 가속화, 대내적으로 독자적 경제사업체 허용·개인 식당 허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조심스런 정책수정을 엿볼 수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한겨레 21

이번 호에는 북한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2학기 북한의 경제노선과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들을 살펴본 바 있는데, 올해 이러한 정책들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용주의 노선'이라 표현되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북한 사회의 경제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편집자

이 찬 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실용주의 노선의 본격화

북한이 김일성 사후인 지난 95년 초 인민생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확정하고 경제개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공업·농업·무역 제일주의'라는 그간 경제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용주의 노선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나갈 전략을 세우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관광기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간 북한이 제정한 관련법령과 규정의 내용만 보면 외국인투자의 우대정책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 1백%의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을 도입하고, 저렴한 세율과 조세감면, 외국은행 및 지점설립 허용, 자유무역지대 당국에 토지임대권한 부여, 무사증 출입국제도 등 여러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우대조치와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을 담은 투자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지난 93년 7월 이후 수차례에 걸친 투자유치단을 중국을 비롯한 대만·싱가폴 등 해외에 파견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직간접 경로를 통해 투자진출 의사를 타진해 왔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짐

김일성 조문파동과 핵문제로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물밑작업을 통해 서서히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94년 11월 정부가 핵·경협 연계방침을 철회하면서 기업인 방북허용,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공포하여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가능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오는 10월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북한방문도 이런 취지에서 맺어진 것이다.

현단계 남북경협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교역 방식이다.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남북한 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들어 위탁가공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승인실적을 기준으로 남북교역 현황을 보면 1994년에는 2억2천 2백71억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4.6% 증가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총 남북교역규모에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81.2%, 1991년 86.3%, 1992년 93.9%, 1993년 94.8%, 1994년 89.0%로 1994년에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남북교역과 함께 남한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대칭적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체제도 남북경협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술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실용주의 노선 따른 경제개혁

어쨌든간에 북한은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대외적으로 계속 풍작을 이뤘다던 공식 입장을 접어둔 채 한국과 일본에 공식적으로 쌀 대여 요청을 한 것도 북한의 이같은 '실용주의노선 확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실용주의 경제개혁에 착수한 것은 중대한 변화의 서곡이다. 이 변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특히 주목된다.

첫째는 95년 5월 들어 당기간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에 독자적으로 경제사업체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전개토록 적극 허용한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국영·협동식당을 개인식당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집을 개조해 개인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각 기관의 경제사업체 허용은 두가지 뜻이 담겨있다. 우선 이들 기관과 각 기존의 공장·기업소들간 물물교환식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시장경제체제'가 가동될 여지는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 94년부터 협동농장을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는 실험을 해온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농업연합기업소의 식량과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경공업제품을 교환함으로써 식량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부족 못지않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온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각 기관의 경제사업체가 국내 구매는 물론 외국으로부터 식량수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점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쌀 수입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북한측 대표가 한국정부와 쌀 대여문제를 협의할 때 정부차원이 아닌 정부가 '담보'하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당기관에서는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경제활동·무역권한을 지녔는데 이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실생활 변화

올 수해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황해도·평안도 같은 평야지대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 협동농장을 국영농장 혹은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고 있다. 반면 함경도·양강도·자강도·강원도 등 경작지가 부족한 곳에서는 농민들의 텃밭 개간을 적극 허용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텃밭 2백평 규모의 제한 관행도 무너져 농민시장에 텃밭의 농작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올 초부터 북한주민이면 누구나 북한돈 20만원(내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미화 2천5백달러 수준)만 있으면 시·도 행정경제위 아래 봉사위원회에 식당개업 의사를 밝히고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식당 지배인(사장)은 이윤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없는 나라' 북한에 세금제도가 부활한 것일까. 물론 그 동안에도 협동식당 등 일부는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개인식당이 협동식당과 다른 점은 지배인이 요리사·접대원·출납원 등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봉사위원회는 관매량과 이윤을 감독하기 위해 직원 1명을 파견한다. 개인식당의 고용관계 형성도 중대한 변화다. 개인식당에서 일하면 대체로 2백원의 월급을 받게돼 공장 노동자의 두배 이상이다. 개인식당은 규모는 적지만 편의식당·국밥집 등의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올해부터 막대한 물자·노동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건설분야의 물자·노동력이 경공업 중심의 지방산업공장 육성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의 실용주의 노선 전망

북한당국이 경공업 제일주의를 '혁명적 경제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해복구 작업으로 경공업과 지방산업 육성 계획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실용주의적 개혁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풀려나기만 한다면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식출범을 앞둔 김정일체제의 조심스런 정책수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글싣는 순서

1. 북한의 현 경제상황
2. **북한의 개방 진행과정과 실태**
3. 탈냉전 정세속의 북한 개방
4. 김정일 체제의 성격과 전망

□ 북한, 실용주의 경제노선 채택의 원인

침체 극복위한 경제혁명

북한이 95년 초부터 8월말까지 취한 개혁 조치는 △당행정경제부서·문화예술단체·교육 등 모든 기관에 대한 경제활동 허용 및 식량수입 권한 부여 △개인식당의 운영 허용 △막대한 물자·노동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전면중단과 경공업 분야의 우선 투자 △농민들의 텃밭 개간 허용 확대 등이다.

이렇게 북한이 실용주의노선을 취하게 된 것은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볼 때 북한경제가 1970년대 이래 정체해 왔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는 계속 퇴보(?)한 데 있다. 북한주민은 식량과 함께 생필품 부족이 겹쳐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경제난 심화는 계획경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 대외무역조건의 악화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간산업부문(에너지, 수송 등)에서의 병목현상, 수출부진에 따른 외화부족, 신기술·원자재 및 자본재 도입의 어려움도 경제발전 저해의 또 다른 요인이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 대외신용의 상실에 따른 외자유치의 부진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다. 여기에 서방국가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제도도 북한경제가 성장하는데 커다란 악조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 이래 북한은 -3.7%, -5.2%, -7.6%,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93년 12월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3년의 완충기 동안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와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3대제일주의를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은 변화된 국제환경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구조를 개조하고, 대외무역에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경제전략을 내세웠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하여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민수산업과 경공업이 낙후될 수밖에 없게 되어 소비재가 부족하고 신기술·외자도입이 차단되어 북한경제는 저생산성과 기술후진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북한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전개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독립채산제를 확대·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경제관리방식을 조정함과 동시에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외자유치를 위한 합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대외개방 폭을 확대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과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에 대비하여 이 지대 내에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외자유치 관련법을 연달아 제정·발표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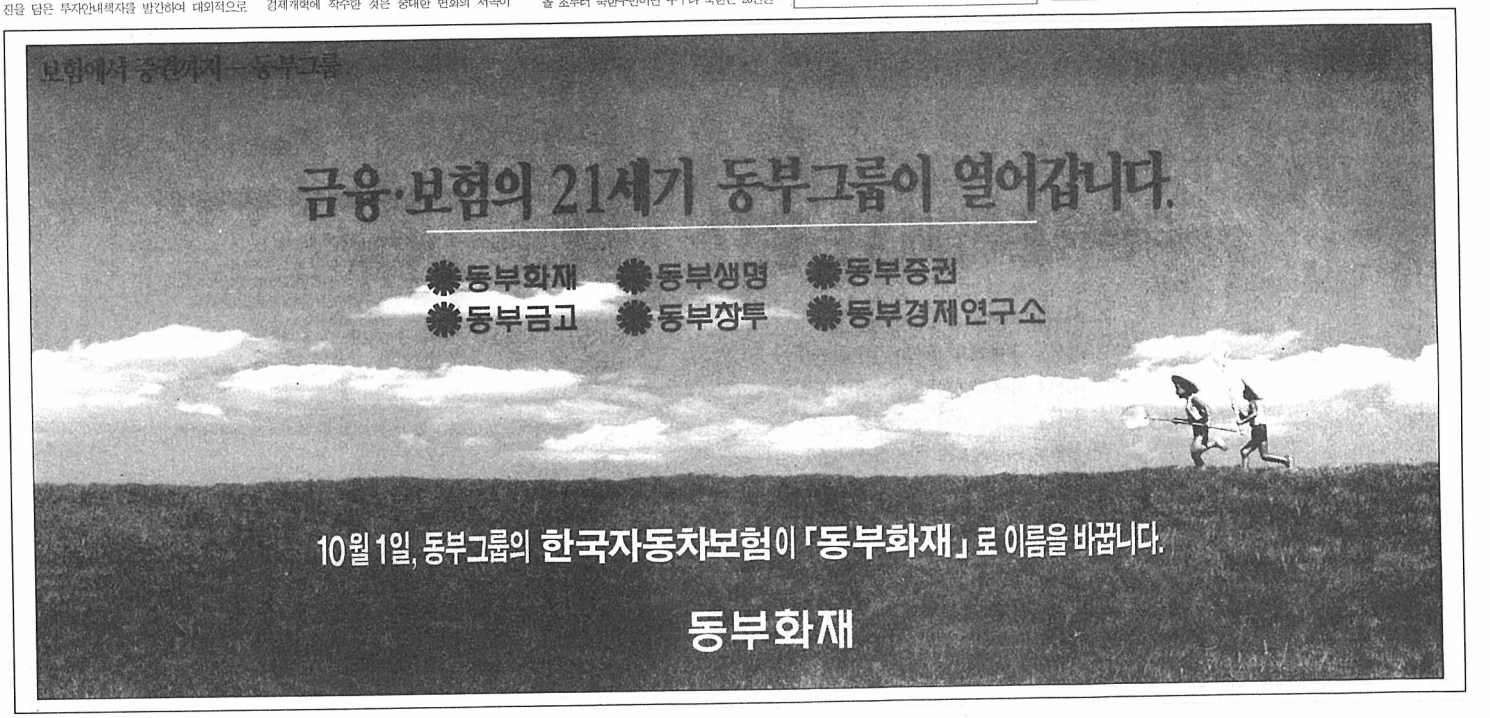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현황〉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

구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1,960	1,010	-48.5	1,020	1.0	1,021	0.0	839	-17.8
수입	2,760	1,710	-38.0	1,640	-4.1	1,620	-1.2	1,269	-21.7
무역총액	4,720	2,720	-42.4	2,660	-2.2	2,641	0.7	2,108	-20.2
무역수지	800	700	-12.5	-620	11.4	-599	3.4	-430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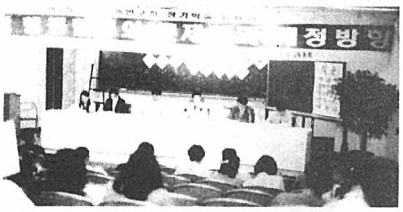
최근 북한의 대외채무 현황

구분	장기성부채								단기성부채		외채총액	1994년 상환도래액
	OECD국 및 자본시장				국제금융기관		개발은행 FECO등 구소련	소계	은행	수출금융		
	국제원조	수출금융 비은행	수출금융 은행	은행채무	계	IMF						
1993년	-	337	99	212	-		6,180	6,829	217	781	7,860	70
1993.3.1	-	357	21	172			5,282	5,802	275	780	6,857	



□제 6차 국제관계연구회 학술발표회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미행협,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지난 21일(목) 국제관계 연구회는 한미행협의 불평등한 조항을 중심으로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 고찰, 논의했다

국제관계연구회의 제 6차 학술발표회 '한미행정협정(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 지난 21일(목) 개최됐다. 이번 학술제는 신데탈트 시대에 국방이 갖는 의미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 문제를 재조명 했다.

첫번째 주제 '한미행협의 성격과 역사적 고찰'에서는 한미행협의 근간이 되는 상호방위조약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의 소개와 한미행협의 체결에서 개정까지의 역사를 고찰했다. 지난 66년 처음 체결된 한미행협은 미군이 타국과 맺고 있는 조약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상 많은 불평등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과 기지사용'의 경우 미군은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돼 있으며 사유재산인 경우에도 소유주가 그에 대한 보상을 미군 측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최근 급증하는 미군범죄로 인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형사재판권은 국가안전 관련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사건 등의 중범죄에만 국한돼 있고, 재판권 자동포기권은 타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조항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80년대 활발하게 제기되면서 한미행협은 지난 91년 개정된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 중 쟁점이 됐던 합의의사록에 결여돼 있어 사람·물건에 대한 집행은 물론 단순한 내부의 사무처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리핀의 협정에는 '요구되고 권한이 주어지는 일무나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와 학설에서도 공무의 개념을 협의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민사청구권, 미군 시설 및 구역의 사용, 노무조항, 통관과제 및 관세에 대한 조항을 불평등한 조항으로 들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개정방향으로 재판권 행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냉전적 사고, 반공이데올로기로 미군범죄 및 주한미군의 문제를 대하는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행협이 정부의 개정방안이 어제(25일) 발표됐다. 계속되는 논의과정에서 과연 이번의 개정방안이 얼마나 현재의 불평등성을 없앨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병권 기자

이 책

유교 · 민족 바탕 둔 동질성이 통일의 논리

올 초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졌던 송두율 교수가 신작으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한겨레 신문사)를 출간했다.

사회과학의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송교수는 치우치지 않는 해박한 지식으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 겪을 수 있는 많은 오류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1부 '독일통일과 한반도'에서 그는 흔히 한반도 통일의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통일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논리있게 설명한다. 또한 구동독의 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동독이 자국내에 소련군을 주둔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외세를 배격해 왔던 북한의 주체성에 대해 설명한다.

남북한의 정치 · 경제 및 사회에 관해 서술한 2부와 3부에서는 여러가지 도표와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한다.

4부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에서 저자는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남과 북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르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이질성 보다는 하나 될 수 있는 동질성이 훨씬 많다"고 자신있게 답을 하고 있다. 그는 남북한 동질성의 뿌리를 유교사상과 민족주의에서 찾고 있다. 또한 통일의 큰 걸림돌로서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들어 통일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나를 보여준다.

5부 '세계질서와 한반도'에서는 탈냉전으로 대비되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의 핵문제를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힘의 질서가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해 준다.

마지막 '결론과 전망'에서 송교수는 독자들에게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라는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저자는 잠정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세계에 존재하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직시하는 동시에 민족이라는 운명의 공동체의 숙명을 항상 생각하는 긴장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이라는 사회는 '줄리지 않는 신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송두율교수의 말처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본질을 그 내부에서 찾아야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뿌닝된 과물'식의 무한한 저주나 무한한 이상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번째 내부의 적인 것이다.

정유정 기자

□법대 학술제 준비위원장 황인목(법 · 법학 3)군을 만나

"교과서식 주제가 아닌 현실속의 법을 추구하고자 했다"

- 법대 학술제가 이번으로 9회째를 맞는다. 기존의 학술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형식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

- 사회문제에 눈을 돌렸다는데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 다시 말해 현실 속의 법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식 주제가 아니라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부분들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 참여 실천성을 부여했다.

- 4개의 전공학회와 사회과학회가 각기 개별적으로 학술제를 준비해왔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 전공학회의 경우 실질적인 준비위원은 내가 아니라 각 학회의 구성원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공의 연구이상의 고민이 이뤄졌으면 하고 그들의 연구성과가 6백 법대 학우들에게 되돌려지는 학술제가 됐으면 한다.

- 발전방향은 있는가

= 과도기적 학술연합이 구성됐으면 한다. 지난 93년 꾸려진 적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교내의 학술행사들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이번 학술제에서 이런 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학술발표회의 차원이 아니라 외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제를 외대 내의 문제로 잡는다면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그리 어렵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은

= 예산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들었다. 87년 처음 시작할때는 형사모의재판 하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행사가 5개로 늘었다. 그러나 교비는 여전히 그때의 수준으로 전혀 인상이 안되고 있다.

박병수 기자

□외국문학연구소

수준 높은 문학연구 활동의 중심지

올초 신설된 외국문학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연구, 학술세미나, 번역작업, 출판, 학술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일(수) 대학원 6104에서 열린 '외국문학 학술발표회' 장면

왜 우리나라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성이 별로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라고 심각치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박철(서반어)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모르니까 노벨상을 줄리가 있나요?" 즉, 우리나라의 좋은 문학작품들을 외국인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유수한 외국의 문학작품들이 우리말로 번역됨에도 우리나라 문학작품들은 외국어로 번역이 안되니 당연히 외국인이 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교에 외국문학연구소(소장 박철교수)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요즘 국제화다 세계화다 해서 본교에는 지역학 도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지역학을 정치 · 경제라는 것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본교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학 도입이 선결적 과제라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세계 각국의 문학연구 성과들이 묻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문학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외국문학을 올바르게 알리는 등시에, 더 나아가 한국 문학을 외국에 번역 · 소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올해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신설한 지 1학기를 넘기기도 전에 벌써부터 많은 연구성과들을 쏟아붓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대표 작가들의 걸작품을 총망라한 문학작품들을 소개하는 '세계문학총서'(총 8권)를 출판했고, 지난 20일(수) 오후 3시에는 대학원 소강당에서 '외국문학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세계문학총서를 시리즈로 계속 출간해 낼 계획이다. 또 학술발표회도 학기마다 켠켠씩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다음 학술발표회는 오는 12월 초에 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김희영(불어과)교수의 '플랑바르트의 문학비평', 송경숙(이탈어)교수의 '이태리문학의 이해', 김성기(루마니아어)교수의 '루마니아 문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행사장은 관심있는 교수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음집해 주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박철교수는 학술발표회 등 일련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아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각국의 연구성과들을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더욱 수준높은 연구성과들을 내놓 수 있는 초석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이후 포부를 밝혔다.

외국문학연구소는 외국문학에 대한 연구, 학술세미나, 번역작업, 출판, 학술교류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본교 1백 50여 어문학 교수들의 문학연구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부

학술단신

법대 학생회, 학술제 개최
현실적 문제가 중심 주제

법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하는 법대학술제가 오늘부터 오는 29일(금)까지 매일 6시에 대강당과 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제는 기존의 주제와는 달리 상품붕과 사건이나 민주노총과 같이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를 다뤄 실천하는 학문을 전달한다는데 취지를 둔다. 학술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맑스철학연구회 '광장', 대학원 6104
△'해양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sea prince호 사건을 통해 본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오염 현황과 대책)
△'소비자 신용'(신용카드와 리스계약) 민사법학회, 대강당
△'대형건축물 붕괴 따른 인명사상의 형법적 책임(삼풍참사 관련) 형사법학회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위헌법률 심판 공법학회

민언협 제 14기 언론학교 개최
언론환경 변화 흐름에 초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오는 26일(화)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제 14기 '언론학교'를 실시한다. 뉴미디어 시대 언론환경 변화와 영상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강연은 총 17개 강좌로 구성되는데 신문, 만화, 뉴미디어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언론과 뉴미디어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26일(화) 한국언론의 역사 및 언론관 이효성(성균관대 교수)
△28일(목) 뉴미디어 시대 신문제작론 차성진(한겨레 신문사)
문의 : 326-1252

아사연 정치개혁 포럼 개최
한국정치 나아갈 길 모색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사연)은 오는 27일(수) 2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제16회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자제 이후 정치질서 개편을 둘러싼 현실정치를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본교 이장희(법학과)교수를 비롯 이부영(민주당)의원, 조정환(자민련)의원과 임채정(새정치국민회의)의원, 노승우(민자당)의원 등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문의 : 889 1801

正道경영·초우량 LG

서울080-023 부산080-052 대구080-071 광주080-061 대전080-041 고객상담실 7007

Quality & Tomorrow Trust & Teamwork
최고의 고객만족

화 학 강 국

첨단기술력으로 化學强國을 실현하는 일-
지금, LG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CU는 유전공학, 정보전자소재, 고분자화학, 정밀화학분야의 첨단 연구개발과 석유화학, 산업건자재, 생활건강, 정밀화학,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의 국내외 합작사 및 해외현지법인 등 사업의 현지화를 통하여 세계 초일류 화학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G

화학CU LG화학 · LG석유화학 · LG MMA · LG얼라이드시그널 · LG오웬스코닝 · LG실트론

□ 학내 성폭력 적색신호

성폭력, 피해자의 속앓이로 그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에 달해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린 지난 학기 도서관에서 일어난 '쪽지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건은 당시 외대를 술렁이게 하고도 충분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언어폭력 앞에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 대개 피해자의 침묵과 속앓이는 있어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책임을 묻는 일은 극소수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그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것이 학내 성폭력의 현주소이다.

지난 주 여학생위원회는 학내 성폭력 실태와 원인, 대책방법에 대한 외대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폭력의 심각성과 관련해 응답자의 38%만 심각하게 보고 있으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2%가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구체적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성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도 5가지 정도의 유형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는 성폭력 경험이 있음에도 개개인이 이를 공개화하지 않아 학내 전체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유형은 불쾌한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성적비유, 술자리에서 강제로 옆에 앉게 한다, 음흉한 눈빛, 불쾌한 성적 접촉, 안거나 키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도가 심할수록 응답자 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문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성폭력이 생활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워낙 뿌리깊게 퍼져있어 그 해결방안이 애매하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선배, 친구, 후배, 교수, 이성친구 순임을 볼 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성폭력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여학생의 "불쾌하다고 말하면 속좁은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워 못 들은 척 한다"라는 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과방, 동아리방, 도서관, 엠티, 뒷풀이 장소가 월등히 많았다.

친숙할 정도인 성폭력에 외대생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자신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농담으로 얼버무리거나 더 진한 농담으로 받아넘겼다는 응답자가 19%에 달했다. 불쾌한 표정을 나타낸 응답자는 27%이고 이에 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즉시 그만둘 것과 사과를 요구한 사람은 10.7% 선에 그치고 있다. 여학생들 자신도 이에 대한 경계심이 없거나 올바른 대책을 모르고 있다. 학내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남학생들의 호기심(39.5%), 친근감의 표시(44.4%)로 보기도 했으나 이보다는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를 가장 많이 꼽고 있어 학내 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가해자의 신분공개, 형사처벌, 학사징계 등에 치례로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신고소 및 상담소 설치, 학칙상 처벌, 징계 강화가 성폭력 근절의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설치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옥선 기자

□ 흔들리는 교내 특강

약발없는 특강… 성적 저조

지난 18일(월) 개강 예정이던 교내 특강이 무변폭 연기됐다. 그 사정은 몇개 강좌를 제외한 강좌의 인원수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방학특강은 본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타학교 학생들도 접수하고 있어 그나마 유지되나 학기 중 특강은 갈수록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본교만의 사정은 아니다. 서울지역 대학의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학 관련 특강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도 답답 합니다. 수강인원이 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라며 학복위 교육담당 진창욱(상경·무역 4)군은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94년 이후 급격히 시들해 지더니 이번에는 개강한 지 1개월이 다 됐는데도 강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진군에 따르면 강사선정 기준을 '성실성'과 '강의 수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내학원보다 강사의 수준과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말을 빌리자면 시내학원을 찾는 이유로 '강의의 질' 문제를 들고 있다. 교내 특강을 두번 정도 들었다는 최지영(사범·한교 3)양은 지금은 시내 어학원에 다니고 있다. "관심이 있어 신청을 했는데 첫 시간부터 강의에 실망해 꾸준히 듣지 않았어요"라고 시내 학원을 찾게 된 이유를 말했다. 사실 개강 초에 비해 종강시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또 본교 어학연수원에서 1년 가까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조지혜(사범·한교 3)양 역시 방학 때 학복위 주최 강의를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강사의 성의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값은 좀 비싸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원 강의를 듣고 있다. 학생들의 기준은 "그 강의가 어학실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이다. 외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강좌는 소수 인원, 실용영어라 현상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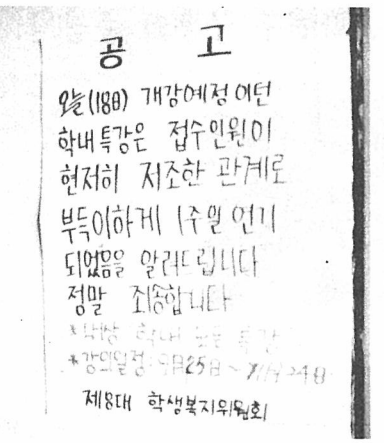
학복위는 교내특강 침체 원인을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의 증가, 저렴한 가격 등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활기를 꾀하는 한 방편으로 1개월 코스 시사어학원을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계획으로 그쳤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좌의 문제점 파악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된 이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격이 비슷한 강좌가 많은 것 보다는 질 높은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이 다양함을 볼 때 취업, 여가생활에 중점을 둔 교양·생활 강좌를 신설하는 것도 각급 학교에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여대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강좌를 만들었다. 여대 특징을 살려 요리강좌를 열었고 경희대는 한방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본교 학복위 역시 한자교육, 풍수지리, 영화학교 등의 생활강좌를 신설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변화된 환경과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교내특강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질 높은 어학특강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채워 줄 어학 이외의 교양강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교내특강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부



공 고

9월(18일) 개강예정이던 학내특강은 접수인원이 현저히 저조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1주일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일정 : 9월25일 ~ 7/7 ~ 10

제8대 학생복지위원회

명수당 매수생

□ 러시아 문화의 보편성

다민족 문화 꽃피운 광활한 땅

김 현 택
〈러시아어과 교수〉

러시아 역사처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화들이 서로 모순되고 갈등하는 예는 흔치 않다. 이처럼 러시아 민족의 특징을 논하면서 20세기 초 러시아 사상가 베르자예프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절대 권력에의 맹종,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비하와 강한 민족적 자존심 등과 같은 극단적 성격이 러시아인의 정신 세계 저변에 함께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요컨대 러시아인은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찾기 보다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갑자기 내닫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시아 정신을 압태한 것은 바로 광활한 러시아 땅이다. 러시아 영토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남북으로는 비잔틴과 스칸디나비아 문화권을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 문화는 처음부터 다민족 문화로 출발한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 최초의 국가 키예프가 설립된 이래로 러시아인들은 영토의 한 가운데 보다는 이웃나라와 교류하는데 편리한 국경 지대에 수도를 건설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10-11세기경 유럽의 남북을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였던 키예프와 노브고로드는 물론 그 이후 등장한 블라지미르나 체르니고프 같은 도시들도 군사전략적 요충이라기 보다는 여러 민족의 문물이 한데 모이는 교류의 중심지인 셈이었다. 다민족 문화가 꽃피운 러시아 땅은 다양한 민족 문화들이 흘러들어 서로 교류하는 하나의 다리역할을 했던 것이다.

러시아 문화가 18-19세기에 크게 융성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서구문화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 전통 속에 독창적으로 수용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 당시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는 영토의 서쪽 경계선에 세운 '서구로 향한 창' 페테르부르그였다. 네바 강변에 위치한 이 항구도시는 애초부터 여러 민족문화가 함께 호흡하던 국제도시 였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발틱 지방 출신의 주민들이 그곳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 문화는 오랜 문물에 대해 늘 개방적인 다민족 문화였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었다. 러시아 문화를 특징 짓는 보편성의 뿌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동방학 분야에 대한 그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인에게 동양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삶과 역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학술원 산하 연구소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근동지역 그리고 파크파스 산맥을 둘러싼 러시아 남부 지역 연구분야에서 수많은 세계적 대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관대한 영토를 무대로 긴 세월을 통해 탄생시킨 문화가 러시아적 특징과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사유양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민족, 다양한 종교, 각기 다른 문화들이 한데 어울리는 독특한 문화 공간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현실 생활과 연관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가 안고 있는 영원한 철학적 과제, 도덕과 가치관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체홉이 자신의 한 작품에서 "러시아인은 현실의 삶을 사는 것보다 회상하고 사유하기를 좋아한다"고 쓴 것도 현실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과거와 미래 속에 살면서 해결하기 힘든 '커다란 문제'들을 붙들고 고민하는 러시아인의 기질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 문학은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적, 도덕적 깊이를 갖는 문학으로 알려졌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는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늘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현재 러시아 문화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문화 속으로 합류시키는데 탁월함을 보여온 러시아 문화가 인류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실시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실험에 실패한 과거를 안고 불발뜻이 밀려오는 외래 문화의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어떤 보편적 메세지를 던져줄지 궁금하다.

생활시평

활기를 찾는 묘책

2학기 들어 서울캠퍼스에는 아침 일찍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시판이 있다. 바로 우리말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말 맞추기'이다. '퀴즈' 형식이 끌어당기는 호기심과 부담없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에 스티커를 붙이는 퀴즈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맞았나 틀렸나는 다음날 새로운 문제와 함께 답을 알 수 있다. 가뿐한 기분으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북한말을 하나하나 알아 나가는 것이다.

우리말연구회에 따르면 약 80%가 정답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 연구회'의 특성을 살린 좋은 예이다. 분단 이후 우리말과 이질화 돼가는 북한말을 학생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자신의 동아리도 외대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 말이다.

반면에 얼마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는 '뚜렷한 활동도 보이지 않고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동아리 회칙 제명 사유로 모 동아리 제명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정식 동아리로 등록 되어 있는데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동아리에서 동아리인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호소문을 돌렸다. 다음 학기 사업계획과 함께.

동아리 이름에 걸맞는 활동, 자신들만의 활동으로 멈추지 않고 외대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전문적이고 내용성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외대는 다양한 동아리들의 활동과 특성으로 풍요로워 질 것이다.

맥빠진 동아리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묘책은 멀리 있지 않다. 한숨은 이제 거두고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때이다.

이옥선 기자

□ 밀려오는 일본문화, 우리는 지금

자본으로 치장한 사무라이 해적

4백명 대학생 중에서 일본 노래를 들어본 사람은 백70명. 그들 중에서 한곡 이상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8.4%. 가장 많이 들는 노래는 Endless rain. 일본 혜비메탈 그룹 X의 빌라드곡 Endless rain은 국내에서 표절 시비가 일어 더욱 유명하다.

최근 음반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도 일본 노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즐겨부르는 노래로 자리잡고 있다.

"잘 들어보면 일본 노래를 표절해 인기를 끄는 가수들이 많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차라리 본래의 음을 듣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 왔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 일본노래 광이 됐나봐요" 일본 노래를 좋아한다는 한 학생의 말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일본 음반은 불법이예요. 하지만 음반시장에 20%정도가 일본음반이 차지한다면 못 믿겠죠"라며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노래가 대부분 불법음반이라 한다. 해적음반은 남대문, 광화문 등에 있는 레코드가게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일본 유학알선업체에 부탁해 일본에서 사오는 방법이 있다.

해적음반에 실린 노래들은 대부분 상업성이 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적음반에 실린 노래들이 우리나라 대중가요보다 음악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외모, 의상 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많아요.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일본의 소위 선진문화를 동경하는 것이죠"라며 본래의 서구문화보다는 이를 동양화한 일본문화에 친근감이 간다는 것이다.

"올해는 일본과 국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일본과 정치·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지만 일본 대중문화 수입금지 원칙만큼은 고수해 왔다"라고 국민일보 기자 이태희씨는 말한다.

하지만 9년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한 찬반론이 일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일본만화의 개방을 논하기 전에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을 모르면 간첩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이에 비해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규제하는 특별한 국내법이 없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규제한다는 무언의 방침만 있을 뿐이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나친 왜색을 배제한다"는 구호식의 내부세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문화를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법의 부재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일본이 서양문화를 동양식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미국·프랑스 등의 대중문화를 일본식으로 변형한 '일본문화'의 서구적인 모습에 일본문화를 우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정민(동양·일본어 3)양은 "문화개방의 속뜻은 일본 영화·레코드·만화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문화산업 개방'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와 문화사업은 엄연히 다른 측면이에요. 제작기술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며 단계적인 문화개방 속에서도 문화정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문화부

적극적 참여 하나되는 동대인

지난 21일(목) 노천극장에선 동양어대 정기총회 및 해오름식과 함께 원어노래대회가 열렸다.

동양 각국의 흥겨운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었다. 9개과 중 6개과가 참가한 이번 원어노래대회는 고군분투상 베트남어과 일당백상 태국어과, 인기상 인도어과가 수상했다. 3등은 터키어과 2등 중국어과, 1등은 아랍어과로 참가한 모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아랍어과는 노동가요 공식음반에 수록된 '가자 노동해방'을 아랍어로 번역해 문선과 함께 '쪽수'가 많아 1등을 했다. 아랍어과 과회장 서종수(3)군은 "열심히 노력하는 과가 되겠다"라며 흐뭇해 했다.

'쪽수'가 많아야 한다. 4학년 가산점 쌓령한 노래 감점, 노래 못해도 됨, 문선 참가시 가산점' 등의 심사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노력이 돋 보였다. 각과 1학년을 중심으로 이뤄진 '춤'과 노래패 노래는 분위기를 한층 높였고 동대방송국의 장점을 살린 영상 역시 흥회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변정우(동학·태국어 1)군은 "너무 좋아요. 흥겹고 친구들이 무대에 나오니까 친근하구요"라며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라 힘이 솟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사 당일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시상이 끝나고 노래패와 문선단이 공연을 할 때는 모든 학생들의 광장으로 나와 함께 노래에 맞춰 율동을 곁들였다. 2학기 들어 각 과, 단대 총회와 대표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 연기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동대인의 하나된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밝게 했다.

김태형 기자

문 화 단 신

이문

신방과 '서울, 1964년 겨울' 공연

신방과 연극패 '한줄'의 '서울, 1964년 겨울'(작 김승옥 연출 양현모)이 지난 20일(수)부터 이틀간 소강당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1964년 서울, 세명의 남자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사내가 자살하고 이를 계기로 두 남자는 현실에 눈뜬다.

연출을 맡은 양현모군은 "1964년,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현실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독일어과 영화 소모임 '필리베' 영화제 개최

독일어로 영화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필리베'가 오는 26일(화)부터 이틀에 걸쳐 영화 탄생 1백주년 기념 영화제를 개최한다.

필리베는 첫 대외활동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6편의 영화를 뽑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영화상식과 개념에 관한 강좌를 연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철행(서양·독일어 2)군은 "강좌의 주제를 참가한 학생들이 정하게 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반영하고 싶다"라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아랍어과, 종합 예술제 개최

아랍어과 30주년 종합예술제가 오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열린다.

첫날 Speech대회를 시작으로 아랍 영화제, 가요제 그리고 각종 공연(민중가요, 문선, 원어연극), 대사초청 강연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27일(수)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1910년대 이탈리아의 아랍제국 침략에 맞서는 한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오마르 무크탈' 한 여자의 복수극을 그린 '끝나지 않는 수사' 남편이 죽은 줄 알고 결혼하려 했던 여인이 남편이 돌아옴으로써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살아있는 남편과 과부' 이렇게 3편의 신선한 아랍영화가 선보인다.

한편 28일(목)은 아랍 국가의 역사, 현 교육문제, 사회생활등을 주제로 '대사초청강연회'가 열리고 대학원에서 '아랍사회주의'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과회장 서종오(3)군은 "30주년을 맞아 생전 안한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경험은 부족했지만 아랍인 모두가 최선을 다 했다"라고 말했다.

□ 광주 안티비엔날레

5월 광주 상처 담은 민속제

지난 20일(수) 광주에서는 두개의 '비엔날레'가 동시에 개막됐다. 중외공원에서의 광주비엔날레와 민예총 주축의 대항행사인 '안티비엔날레'가 그것이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안티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인사와 행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광주의 현대사 상처에 대한 해석과 대응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그러면서도 광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환영받지 못할 바도 아닌 그런 행사이다.

안티비엔날레가 열리는 이유는 관 변주도의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한 경계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광주의 자존심을 적당히 부추기고 '경계를 넘어서'(비엔날레 주제) 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현 정부의 정치적 복선에 말려들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다. 광주지역 미술인과 재야단체 회원 1백여명이 모여 안티비엔날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난 6일 4일.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지난 20일 부터 보름간 광주항쟁의 주무대인 전남도청 앞 상무관 등 시내 일원과 망월동 묘역에서 행사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공식 명칭도 '광주 통일민속제'로 하고 주제도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인 '경계를 넘어'를 의식해 '역사는 산을 넘고 강물로 흐르고'라고 정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도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만화, 사진, 걸개그림, 설치미술, 행위예술 등 미술 전분야에 걸쳐 마련되며 광주, 전남 미술인 공동체 등 지역 작가는 물론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제주 등 전국 민예총 소속회원 등 사상주의 작가 3백여명이 참여했다. 또 광주비엔날레의 문제점과 물량주의 폐쇄를 부각시키는 두 차례의 워크숍과 길놀이, 씻김굿, 오월미술상 시상, 광주항쟁 및 미술관련 영화 상영도 준비하는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문화부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메마른 도심속의 은은한 사랑이야기

왕가위의 '중경삼림'

정 재 헌
〈서양·포르투칼어 1〉

홍콩영화 '중경삼림'을 보기 위해 종로의 한 극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우연히 짝사랑 했던 여자애가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와 가벼운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이런 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것 때문인지 괜한 행복감이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다.

'중경삼림',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의 느낌도 이와 똑같다.

이 영화는 '중경' 거리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4명의 남녀에 관한 두개의 에피소드를 엮은 것이다. 첫번째 에피소드에서 경찰 2백23은 연인으로 부터 실연을 당하고 우연히 옆을 스쳐지나간 마약 밀매를 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스쳐간 지' 57시간 후에 사랑하게 된다. 두번째 에피소드는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인과 스튜어디스인 여인에게 실연당한 경찰 6백33과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스토리 위주의 전개에서 벗어난, 화면 그대로를 물 흐르듯 따라가는 어느 영화에서도 느끼지 못한 독특한 느낌을 준다. 속도감 넘치는 카메라, 그 속도감 속에 파묻히지 않고 주인공을 끄집어 내는 왕가위 감독 특유의 재능이 영화의 흐름을 더욱 역동적으로 보이게 해 준다. 그리고 하잘게 지나갈 작은 소품들의 스토리간의 맞물림이 거대한 중경거리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4명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다. 자세히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소품, 음악, 인물들이 두 에피소드를 넘나든다.

그 하나가 경찰 6백33이 두번째 에피소드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여자! 금발가발에 선글라스를 쓴 임청하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임청하가 완구점에 있을 때 인형을 사들고 나가는 여인은? 에피소드 2에 주인공인 왕정문이다. 게다가 경찰 6백33이 채일 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우연히도 그가 왕정문이 그의 집을 드나드는 걸 들킨 뒤 찾아갔을 때 왕정문이 듣고 있던 바로 그 음악이다. (목소리론 Brenda Lee 같은데 .)

이 영화를 한번더 보러 갈 생각이다. 어디서 마주칠 지 모르는 주인공들을 찾으러 갈 수도 아니면 극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경찰 2백23처럼 종로의 밤거리를 마구 달릴 것이다. 그 속도감 속에 파묻히지 않고 남아있을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일지도.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그날 밤처럼 말이다.

왕산

하얀공간, 졸업 회고전 열어

지난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하얀 공간'이 제2회 졸업 회고전을 열었다. 졸업을 앞 둔 4학년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박소희(서학·이태리어 4)양은 "4년 동안의 자취가 묻어있는 공간을 떠난다니 무척 아쉽다"라며 대학생활의 마지막 전시회를 갖는 소감을 밝혔다.

애드벨리, 정기광고 전시회 개최

광고동아리 '애드벨리'는 오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3회 정기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여름방학부터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광고, 지면광고, 광고조형물 등이 선보인다고 한다.

"저희 동아리가 생긴지 얼마 안돼 어려움이 많았지만 '애드벨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 했다"며 "광고 동아리의 특성을 살려 다른 전시회와 차별성을 두고자 했다"고 최선영(서학·이탈리아어 4)양은 이번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9〉 땡땡이 옷

우리말 속 일본말

우리들이 입는 옷 중에는 물방울 무늬가 박힌 옷을 보고 흔히 '땡땡이 옷'이라 하는데 'ブル'은 점을 가리키는 일본말로 우리말로는 '물방울 무늬 옷'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말 연구회

대우통신

26.7×20.4cm, TIME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폭 넓은 시사 정보가 담겨 있다.

타임지보다 더 커야 내용이 충실한 건 아니다.

26.1×19.3cm, SOLO
녹음, 무선데이타 송수신, 멀티미디어
확장까지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 모델명 (CPC-7400T) • CPU Intel 486DX4-75MHz • Memory 기본 8MB/최대 20MB
■ 기본제공 • 한글 MS-DOS6.2 • 한글 Window 3.1 • 한글 3.0 • 윈인텔 • 자동 부팅시시 표

초소형 고성능 노트북—
「솔로」 하나면 충분하다

무거운 노트북, 덩치 큰 노트북은 갔다. 타임지보다 작은 초소형 솔로가 왔다.
성능을 의심받던 노트북들은 사라졌다. 이제, 미국 산타클라라 노트북 연구소에서
세계 최고의 노트북 전문가들이 만든 고성능 솔로가 탄생했다.
휴대는 더욱 간편하고, 성능은 더욱 탁월해졌다. 정보화 세대의 캠퍼스 필수품, 솔로.

■ 초소형·고성능 노트북 「솔로」의 고성능과 다기능 • 26.1×19.3×3.8cm, 1.8kg • Video 1MB • HDD 540MB • FDD 3.5" · 1개
• 16비트 사운드 카드의 콘덴서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잭 내장의 녹음, 재생 기능 • 포인팅 스틱 방식 · G-H-B Location: • 4~6시간 사용 대용량 Ni-MH 배터리
• 8.4" TFT 방식 LCD • Sound Blaster 호환 • 무선적외선, SIR: 통신 기능 • 간편한 업그레이드, 멀티미디어 확장 기능

SOLO
초소형·고성능 노트북…솔로

솔로 가격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 CPC-7400T: 2,684,000원 • CPC-7400S: 2,255,000원 (부가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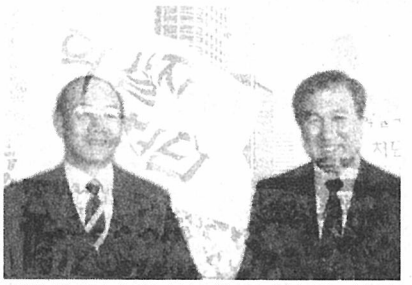
대우통신 소비자보호실 080-022-030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터 빌딩 (우 100-714)
대우통신 고객상담실 080-022-03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유통영업부: 589-2552~5, 2572~3, 2582~4 ■직판영업부: 589-2453~4, 589-2473~4, 589-2503~5, 589-2513~4, 589-2532~3, 589-2463~4 ■지점: ●부산지점 051 853-4455 ●충남지점 042 621-5033 5●전남지점 062 526-4300 1●동남지점 053 426-3155, 3166 ●경남지점 0551 93-2007 8●경인지점 032 872-0255

□ 민심기행: 5·18 책임자의 고향, 대구를 가다

5·18에? 처벌은 해야겠지만서도…

지난 7월 18일 검찰의 5·18관련자 공소권 포기 발표 이후 전국은 온통 5·18로 떠들썩하다. 이번엔 학생들만이 아니다. 교수부터 예술인, 스님, 목사, 교사, 천주교 사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곳곳에 성명서 발표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와의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5·18 책임자들의 고향, 대구는 지금 어떨까? 스스로 완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30여년 긴의 군사독재정권의 근거지로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이러한 투쟁을 바라보던 대구시민들의 시각도 이제는 달라졌으리라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설문조사 9면)



학살자 처벌의 목소리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학살자 처벌은 이미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임을 대구에서도 확일할 수 있었다

21일(목) 대구역, 설문지를 돌리며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 보았다.

"모르겠심더, 지가 우째 압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같아 얼려하며 설문지를 돌리던 중 백발의 한 할아버지(김수익 74세, 상업)가 순순히 설문지를 받아들길래 "요즘 대학생들 데모 많이 하죠"라며 슬쩍 말을 걸어 보았다.

"요즘 5·18 때문에 좀 시끄럽지, 시위가 가끔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다 이해해. 현정부의 5·18불기소 처분은 아주 잘못됐어,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돼, 그리고 재네들 수고가 많네" 대구에서 70이 넘은 노인에게 이런 말을 듣자 이 지역 민심이 더욱 궁금해졌다.

역에서 경북대로 가는 동안 택시기사 서해암(49세) 씨는 "전, 노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동정하듯 말을 이었다. 잘한 것도 없고 쓸데 없이 김영삼씨를 키워가지고는 우리가 욕본다 아입니껴, 그래도 괄이 안으로 굽는다고 미워할 수는 없지예, 잘못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대구를 이렇게 키웠잖습니껴", "처벌예? 처벌해야 될 사람은 말 안해도 처벌될 끼고 처벌안될 사람은 처벌하자케도 처벌 안될 낀데. 저래 데모할 필요 있심니껴?"

예상했던대로 대구지역 주민들은 30년동안 정권을 쥐고 있던 TK세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5·6공시절 권력에 있던 TK세력이 국회의원에 나온다면 뽑겠냐"는 질문에 17%만이 "뽑지 않겠다"라고 답해 대구시민들의 TK에 대한 향수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제는 5·18에 대한 대구지역 주민들의 객관적 정서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매일신문의 사회부장 김재한씨를 만나보았다.

- 대구시민들은 5·18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같습니까

"광주와는 다르겠지만 대구사람들도 5·18이 민주항쟁이었고 검찰의 공소권포기는 말도 안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구시민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TK가 몰락하느냐, 위천에 공단이 들어설 것이냐 등이 주요 관심사다"

- 5·18에 대한 민심의 동향은 어떠합니까

"5·18에 현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겹치면서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은 타 지방과 비슷하나 40대 이후는 대구의 경제 침체 등 지금 대구가 처한 위치때문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5·18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데 있어서도 공감하나 대구의 사정상 정세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는 없다"

매일신문의 김재한씨의 말대로 전국 각지가 5·18책임자 처벌 시위로 온통 술렁임에도 대구는 아직 조용하다. 간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5·18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으나 범시민적으로 확산돼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대구시민들 또한 "5·18 학살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7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9%가 전·노 전직대통령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5·18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하고 진실된 목소리는 지역적 사정·특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구지역 시민들도 예외가 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그러하듯 청년학생들의 5·18처벌 목소리가 이곳 대구에서도 거세기는 마찬가지였다.

고향 사람들조차 거부하는 전·노 학살자들의 처벌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는 대세임을 이곳 대구시민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병권 기자

대학가가 온통 5·18 문제로 들끓고 있다. 교수들의 집단성명을 시작으로 지난주 부터는 각대학의 결의대회가 잇달아 이뤄졌다. 사진은 서명운동과 하루단식을 하고 있는 본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앞

대학가는 지금 5·18 비상시국

동맹휴업 때 절정 이룰 듯

9월을 한 주 남겨둔 지금, 아직도 전국의 대학생들은 5월문제 해결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소속의 각 대학에서는 서명운동과 산발적 집회들이 지난 주부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지난 19일(화)부터 '5·18학살자 기소촉구를 위한 범고연인 서명운동'을 통해 모금을 받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21일(목) 집계된 바로는 5천 4백18명의 서명과 4백여만원의 금액이 모인 상태라고 한다.

각 학교의 결의대회의 경우, 지난 21일(목) 경희대와 시립대, 서강대와 중앙대가 각각 학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립대 학생 3명이 연행됐다. 또한 중앙대의 경우 투쟁선포식 과정에서 중앙운영위원과 학생들이 대자보에 혈서를 쓰고 단식에 들어갔으며 가두시위를 막는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강대는 이미 지난 6일(수) 제 1차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날 집회로 총·부학생회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상태다.

지난 22일(금)에는 본교를 비롯, 연세대와 고려대, 광운대가 학내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편 각 지역총련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5·18문제와 프락치 사건, 그리고 서명운동을 하던 학생들의 불법연행에 대해 지난 20일(수) 전북도경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이 지역 총학생회장단이 도청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으며 단식장 천막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토) 영호남 청년학생대회를 열어 두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5·18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는 것과 함께 경찰의 진압도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구속방침과 진압과정에서의 최루탄 난사·구타 등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서명과 함께 대학가의 5·18투쟁의 열기는 그럴수록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29일(금) 30일(토) 동맹휴업 때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사회단신

정부, 노조활동 겨냥한 법개정 추진
민주노총 본격 투쟁 방침

정부가 '노조 전임자 축소와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전임자 축소'는 노조의 간부들을 축소해 노조의 활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근로자 파견법'의 경우는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기업가는 경제적 이익을 보나 기업내에 상근 근로자가 줄어들게 돼 노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침이다. 미국은 '근로자 파견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운동이 거의 괴멸됐다.

한국노총 역시 "두가지 사안은 현재의 노동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침은 사용주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노동운동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교육선전 사업을 강화하고 10월 말까지 대정부 대국회 압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중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숙대신보 제작중지
교수·학생기자 간 대립 장기화 조짐

숙대신보가 발행중지 됐다. 숙대신보는 907호 후기학위수여식 사진이 기자들의 관단착오로 6년전 사진을 실는 실수를 하게 됐다. 이를 문제삼은 주간교수는 908호에 "대학신문의 논조는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중국의 인민일보에도 나오지 않는 치졸한 붉은 이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대학 교수의 사설을 싣을 것을 강요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사설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근거가 없다고 반발, 사설 집필 교수와 주간교수에게 이 글의 게재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월) 신문사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생기자들이 사진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설을 싣지 않겠다고 교수를 협박한 점은 교권에 대한 침해라며 편집장을 해고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숙대신보 기자들은 신문사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주간교수의 퇴진과 현재 교수들이 전적으로 쓰고 있는 사설을 교수와 기자가 공동집필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들에 대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조폐사업 공익사업에 포함 추진
노동계 편법개정 반발

정부가 조폐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한국조폐공사업'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하고 있다.

제정경제원은 노조의 파업으로 조폐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막기위해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며 민노총은 재경원의 법개정 추진을 노동 관계법 체계를 무시하고 저지시키려는 편법개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 노동쟁의법은 공익사업을 지하철·철도·버스 등의 공중운수사업과 수도·전기·가스·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통신 사업등의 5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조폐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려면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특별법을 개정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

□ 박창희 교수 6차공판

공소장 내용, 증인 심문으로 허위 드러나

박교수 고발한 박현서 교수 진술, 앞뒤 하나도 안맞아

6차례의 공판, 두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박찬종 교수의 혐의가 허위일 가능성이 짐점 분명해 지고 있다.

지난 18일(월) 오후 2시 박문희(학교수의 큰형), 하찬식(박교수 중학 선배, 일본유학시절 앞뒤 사이), 우창정(은성바이오 사장), 박현서(고발자, 한양대 교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린 6차 공판, 증인심문 과정에서 공소장의 내용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하찬식(68세)씨는 "안기부의 조서가 일부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라며 자신은 "서태수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그의 여자 같은 성격을 봤을 때 잘대로 공작원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공소장의 내용 중 "박교수가 이력서를 준비하여 노동당에 입당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 중 예를 들면 '나는 나의 땀을 회사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세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우창정씨는 "이력서는 노동당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또 '땅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문구에 대해 "당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박교수의 땅이 담보물이 되어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요구했다"고 증언해, 그 내용으로 인한 반국가 단체가입 혐의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는 박교수를 고발해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박현서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변호인측은 △박현서 교수 진술서와 신문조서 상 내용의 상이점, △시간의 모순, △내용의 불합리성, △고발 후 조사과정, △고발동기, △고발내용의 진실여부 등을 신문했는데, 박현서 교수는 내내 앞뒤가 안맞는 진술로 일관해 조작의혹을 샀다.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박현서 교수는 "처음에는 박교수를 안기부 프락치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등 앞뒤가 안맞게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했다. 또한 변호인측이 '북한 관련 스크랩을 직접 갖고 왔다는 진술과 안기지고 오고 나중에 부쳐왔다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추궁했는데 박현서 교수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오는 10월 2일(월)에는 7차공판이 열리는데, 박교수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심문을 받게된다. 7차공판 이후에는 박교수의 혐의 진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승주 기자

□ 5 · 18기소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민자당 이환의 의원을 만나

"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 민자당 의원으로서 5·18 서명에 참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광주시민의 한사람이다. 5·18을 직접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자의 불기소 조치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5·18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었다. 현재 담론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기소중지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헌법기관의 하나로서 기소촉구 시민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반독재·민주화 투쟁으로서 광주시민의 성스러운 행동이었다. 광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라고 생각한다.

- 혹시 민자당 안에서 못마땅한 눈총을 받지는 않는가

= 담론을 어기고 5·18 기소촉구 캠페인에 동참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나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으로 오늘 광주광역시 지부위원장직과 당무위원직 사표를 내고 왔다. 그러나 민자당원이기 전에 한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내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이다.

- 정기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혼자라도 찬성하겠다고 했다는데

= 물론이다. 여당에서 비록 고독한 결정이 될지라도 내 소신대로 행동할 것이다.

- 5·18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들을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항쟁에 나선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을 다치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 5·18관련 집회에 대한 경찰들의 강경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주장이든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국가의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평화집회에 대해서도 경찰들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선 안된다. 프랑스, 미국은 아무리 교통이 마비되도록 시위를 해도 경찰은 그 시위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출동한다. 결론적으로 시위를 하는 시민·학생들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면서 선진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 5·18과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는 동맹휴업을 준비하는 등 많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 정치인으로서 내 갈길을 가는 것이다. 기왕 결심한 일이니까 민자당에서 당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단체와 학생들도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5·18기소촉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

박현숙 기자

□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5 · 18 유족회 박병률(35세)씨를 만나

"5·18 책임자가 처벌된다면 이정도야 기쁩니다"

명동성당에서는 5·18 유족회와 부상자 동지회 회원들이 지난 7월 19일(수)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해오고 있다.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허술한 천막, 흡사 소풍장난의 장난감을 연상케하는 가재도구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은 이런 악조건에서 장기간 농성을 해온 사람들 같지 않았다. "5·18책임자가 처벌된다면 이 정도야 기쁘다"는 생각으로 농성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유족회의 박병률(전 조선대 의대 학생회장)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눠 보았다.

- 농성을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시민들의 반응은

= 한마디로 뜨거웠다. 우리도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성원을 보내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시민들의 응원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

- 천막농성 도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

= 경찰과 충돌할 때가 힘들었다. 특히 8·15민족공동행사 전까지 5·18 투쟁 열기가 한향곡선을 그릴 때가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다.

- 지금은 몇 명 정도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나

= 우리 부상자동지회에서는 5명이 남아 농성을 하고 있다.

- 5·18 불기소 결정이 발표됐을 때 피해 당사자로서 심정이 어땠는지

= 솔직히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반민중·반민주 정권임은 이미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드러났기 때문이다.

- 현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학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보는가

= 현 정부는 5·6공 토대 위에서 탄생한 기형적 정부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할 때 학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현재 학생들과 각계 단체의 5·18 투쟁에 대해 평가한다면

= 다들 열심히 5·18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것 같아 고맙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쟁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홍보전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 끝으로 5·18투쟁을 전개하는 학생들과 단체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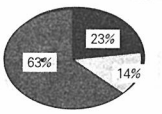
= 우리 농성단이 더 이상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 다른 문제들도 연계해 투쟁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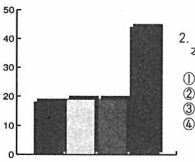
박병수 기자

□5 · 18에 대한 대구지역 설문조사

1. 대구지역 민심이 보수적이라 생각하는가?

① 그렇다 63%
② 보통이다 23%
③ 아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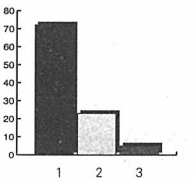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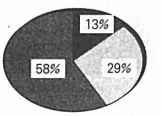
2. 5 · 18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부정적이다 18%
② 별의미를 두지 않는다 19%
③ 긍정적이나 다소무모한 행동 19%
④ 민주화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민주화 항쟁 44%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① 부정적 72%
② 보통 23%
③ 긍정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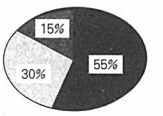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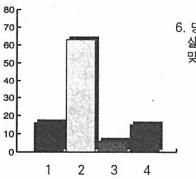
4.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부정적 13%
② 보통 29%
③ 긍정적 58%

5. 당신은 전노 전직대통령이 5 · 18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보는가

① 그렇다 55%
② 모르겠다 30%
③ 아니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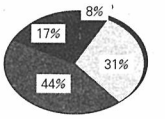


6. 당신은 전노 전직대통령에게 '내란명목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나

① 그렇다 16%
② '내란명목 살인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 통치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63%
③ 모르겠다 6%
④ 아니다 15%

7.당신은 5 · 6공 시절 권력에 있던 TK세력이 국회의원에 나온다면 뽑겠나?

① 뽑겠다 8%
② 5 · 18관련자가 아니라면 인물을 보고 찍을 수도 있다 31%
③ 5 · 18관련자라도 인물보고 찍을 수 있다 44%
④ 뽑지 않겠다 17%



위 설문조사는 대구역, 동성로, 대구백화점 등에서 무작위로 1백명을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주로 2 · 30대가 설문에 응했다.

시 론

특별법, 이렇게 제정돼야 한다

지난 여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5·18관련자에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1년 2개월간의 수사끝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즉 문제가 된 행위는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관련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 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을 기점으로 하여 15년 후인 금년 8월 16일로 만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각계에 여러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소·고발인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이른바 5·18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을 지켜보면서, 특별법제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법이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보다 보편적인 보통법에 비해 보다 특수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5·18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5·18광주사태 관련범죄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우선하여 이 법이 효력을 갖고 적용된다.

5·18특별법의 내용은 그 제정을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수사기회의 확보 및 수사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두가지 점에서는 의견이 모아진다.

우선 전자를 위하여는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가 주장되고 있다. 이는 그간 5·18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 또는 헌법파괴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보장돼야 한다"

변 해 철
(본교 법학과 교수)

한편 후자를 위하여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권력형 대형 비리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 비리에 대하여는 중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가 수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우선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로 든 통치권자 개념에 대하여서이다. 각국의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회의 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헌법은 제 64조 제 4항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 각국은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 제한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통치행위 개념은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일정한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논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각 정당 기타 단체의 선명성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변화가 물밑에서 일고 있는 시점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경우 그간 각고의 세월을 지내며 축적해온 우리의 민주역량은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다시는 우리에게 일부에 의한 헌법파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희생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제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正道경영·초우량 LG

LG

"페인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데이비드 페인(1944~)
David Pein
영국의 과학자, 영국 Optical Fiber Group의 책임연구원, 주로, 광통신, 광섬유, 광전송, 광소자 분야 등에 관한 전문연구로 지금까지 무려 100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117회의 특허를 획득,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광케이블, 광섬유—
선생님의 명성 드높긴 하지만
죄송해서 어떡하죠?
선생님의 그 명성을 앞서게 되면…

수십 Giga Bit/sec의 초고속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하는 광케이블—
내장된 광섬유의 직경은 245 μm,
실리카 글라스의 순도는 99.9999%—
사람 머리카락 보다 가는 이 기기막힌 유리관을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업적과 명성 드높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선생님의 그 일 보다
차원높은 21세기 "INFORMATION SUPER HIGHWAY"
기반 조성.

이 분야 세계 TOP에 도전하는 세계 10위 기업.
LG전선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가능케 하는
차원높은 광통신 기술로 미래사회의
핵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LG전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LG트윈타워)
TEL : (02)787-2344, 2334
FAX : (02)787-2640

ENERGY & INFORMATION SUPER HIGHWAY를 개척하는 - LG전선

■기초사업 / 비철금속 가공기술 분야, 절연재료 가공기술 분야
■주력사업 / 초고압 기술분야, 광통신, 광 응용시스템 분야

외대와나

한 '인간'에 대한 단상

이 인 우
〈신방 79, 한겨레신문 기자〉

2년전 이맘때였을 것이다. 외대 앞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우연히 교수님 한 분과 마주쳤다. 그분은 금새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으나 나는 그분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15년만에 거의 처음 만난데다 물리보게 하얗게 센 그의 머리때문이었다. 어쩌튼 그때 그분과 나는 따로 일행이 있어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 우연한 만남을 기쁘게 여겼다. 한 때 우리는 서로를 경원하는 사이였지만 세월이 그 간극을 메워버린 느낌이었다. 그분은 내게 꼭 한번 찾아오라고 당부하셨고 나도 그러마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다시 찾아뵙지는 못하고 있어 죄송스럽다. 그 교수님과 나는 80년 5·17 계엄령에 의한 휴교령이 해제된 뒤 다시 문을 연 가을 캠퍼스에서 대학 2년생 외대학보 학생기자와 주간 교수로 만났다. 당시의 캠퍼스 분위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폭압적인 것이었다. 80년 짧았던 서울의 봄 당시의 편집장 선배는 사찰기관의 압력으로 신문사를 쫓겨나야 했고 기자들의 활동에 숱한 제약이 가해졌다. 그것은 거의 학교외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지만 그에 대한 비난은 대부분 주간교수나 편집인 교수에게 쏟아졌다.

학내시위기사는 물론 정치사회적인 어떤 직접적인 비판도 보도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면서도 학생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현재를 중언해야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기자들을 교수님은 우려스럽게 여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기자와 주간교수 사이에 기사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아마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던 모양이다. 급기야 학교 당국은 학생기자들도 모르게 신문사 세칙을 고쳐 일부 문제기자를 성적불량 등의 조항을 걸어 축출하고 학생기자선발권과 편집권 등을 박탈하려고 했다.

결국 그 해 겨울방학중 벌어진 학생기자들과 편집인, 주간교수로 대표되는 학교당국과의 편집권을 둘러싼 충돌은 학생기자 전원의 총사퇴로 끝나고 말았다. 그날 중국음식점에서 마주친 그 교수님과 나는 그 사건의 전면에서 "사상이 불온한 학생"과 "어용소리를 들어도 싼 교수"로 서로를 매도했다. 우리의 관계는 교수님들이 '사상건전하고 품위방정한' 새 학생기자들을 맞아들이면서 끝났지만 새 기자들 역시 곧 "사상이 불온하고 예의도 없는 놈들"로 성장해갔다. 비판과 저항 정신은 거의 모든 시기 학생들의 시대정신이었지, 결코 일부 학생기자들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교수님이 반가왔던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느끼게 된 것, 즉 누가 옳았고 틀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때를 함께 보냈구나 하는 그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근 학교당국과 외대학보 기자들의 마찰로 인해 급기야 몇몇 학생기자들이 부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그 교수님과의 우연한 만남이 떠오른 것은 왜일까.

학생기자와 학교당국의 편집권을 둘러싼 갈등은 대학신문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되는 딜레마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인간들의 관계속에서 전개되느냐이다. 성적을 무기로 학생기자들을 위협하거나, 징계를 남용하는 따위로 해결될 문제라면 아마도 15년전에 끝났을지 모른다.

외대학보는 그동안 많은 전통의 단절을 맛본 외대가 그래도 지니고 있는 몇 안되는 소중한 전통중의 하나다. 특정교수나 학생의 독단이 외대학보의 전통을 훼손하고 서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불신의 화인을 찍는 일만은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 세월이 지나면 언제고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리고 최후까지 남는 것은 인간에 관한 기억뿐이다.

우리가 남인감?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아는 우리민족, 우째 이런일이..

민자당이 수혜를 입은 북한동포에게 북한에서 정식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쌀을 보내냐고 목청높여 주장했다는데...

이에 한 북한동포, "우리가 남인감!"

〈노〉

○…상이월에 불이닥친 역풍! 시대가 어느때인데 결혼을 사유로 해고당해.

여직원이 기가막혀, 여직원이 기가막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 지노위도 여직원편을 들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학당국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이소식을 들은 한 흡산 왈, "재다, 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우〉

○…교육의 수요자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흡산들 불평이 하늘에 닿아 궁금하게 여긴 크로니클자 알아보니 항상 그래왔지만 대학당국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을 개정할 조짐이라는데…

학교어르신네들, 우리 함께 협력하여 잘나가는 외대 만들어봅시다.

〈진〉

○…징계처벌은 무죄?

지난 외대학보 사태로 무기정학을 당한 두기자의 징계가 풀려났는데…그러나 기자들은 여전히 노심초사.

왜그런고 알아보니, 1년시이 정확한 죄명도 모르는 채 벌을 받은 흡산이 많다고...

한 기자 왈, "이번에는 누가 걸려들까?"

〈징〉

○…눈물없이 지나갈수 없는 거리???

이게 무슨 소리?

지난 22일 이문골에서 열린 5·18학살자처벌 집회에서 전경들이 최루탄을 난사해 지나가던 학생 시민들의 눈물을 쏙빼놨다는데… 5·18 생각만해도 눈물이

눈물나는 거리

□ 지난 18일(월) 열린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 논의 내용

"교수의견 수렴 필요하다"

계열별 전공학점 조정 입장 엇갈려

본교 교육과정개정안에서 실용영어 총 8학점(1학기 2학점, 4학기)·교양학점 총 24학점 이수가 지난 18일(월) 열린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 96학번부터 적용되고 전공·복수전공/자유선택/부전공학점은 단과대학별 의견을 조정하여 97학년도부터 실시된다.

이는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양캠퍼스 교무처장·과장, 각 단대 학장, 전문위원 1인 구성)에서 동·서양어(한)대측이 전공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96년도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것이 1년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날 각 단과대별 분임토의 내용을 보면 각 단과대학 및 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성적평가는 교수재량에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전과목 상대평가제도입은 학생간 경쟁의 심화를 통한 소수엘리트 생산이라는 취지로 분석돼 쟁점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또한 학기별 최대수강학점 개정과 복수전공 신청시기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복수전공을 1학년 2학기에 할 경우 인기학과 편중으로 상대적인 비인기학과의 쇠퇴를 우려한 발로라고 분석된다.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에 대해 용인캠퍼스 한 관계자는 "특수어문학과의 경우 4년동안 어학만해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실질적 어학습득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교양과목 강좌운영을 현재 3학점 3시간에서 2학점 2시간체제로 전환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양교육과정개정안이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현재 본교 강사의 출강 등을 고려한 3시간 연속강의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학생들의 수강신청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강신청 학생의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학과에서 전공과 관련된 계열기초 성격의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이 1학년 과목으로 설정됐다.

교양과목은 1학년에 5개영역, 2학년에 4개영역, 3학년에 3개 영역을 두어 매학기 개설된다. 또한 1학년은 6개과목, 2학년은 4개과목, 3학년은 2개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1·2학기 동일 영역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곽근영 기자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각 단과대학별 분임토의 내용〉

서양어	단과대학 및 학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 어문계열은 전공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해야함 어문계열은 제2외국어를 필수로 해야함
동양어	실용영어 담당교수를 더 확보해야 함(현 2명으로 부족) 연구위원에 인어학과 교수를 포함시켜야 하며 계열별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 어문계열은 전공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해야 함 성적평가는 교수재량에 일임해야 함 전공은 대학원 교과과정에 연계성있게 편성해야 함 전임교수 책임시수를 하향조정해야 함
서양학	전공 54학점으로 외국어 숙달이 어려우니 시간을 늘려야 함 전공과목의 문법 · 강독도 30명 이상인 경우 분반해야 함
정책과학	복수전공 도입을 찬성 전공 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해도 수용가능함 수업은 원칙적으로 54이에 끝나는 것으로 해야 함
법과	제2외국어를 강화해야 함
상경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더 검토후 건의하기로 함
사범	제2외국어를 필수로 해야 함
인문	전공 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해도 수용가능함 전임교수 책임시수를 하향조정해야 함 교양 이수학점을 26-28학점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사회과학	상경계열에서 개설가능한 교양과목 개설 요망(경제원론·경영학원론·회계학·무역이론) 졸업이수학점과 최대이수학점 개정을 요구함 복수전공 신청시기를 개정하도록 요구함 교양과목의 분반에 따른 수강인원 상한을 80명에서 50명으로 낮춰야 함

□ 교육과정개정안 소연구위원 이은진교수를 만나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제로 깔려있다"

본교는 지난 8월 28일 전체교수회의에서 현 정부가 대학자율성 제고와 학구적 풍토 일신을 위해 발표한 5·31개혁안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본교 교육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교양중심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쟁을 통한 소수 엘리트 양산이라는 위험성도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 연구위원장을 맡은 이은진(교육학과) 교수를 만나 개정안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항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이 제기된 배경은

= 지난 2월 28일 정부의 교육법 시행령이 자율적으로 풀리면서 대학자율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발표안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따라서 이번 본교 개정안은 대학자율성을 높여가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고 할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되는 내용은

= 한마디로 다전공, 복합학문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전공인정학점제(총 이수학점의 1/4 - 1/6)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 제2외국어 영역과 관련 동·서양어(한)대는 8학점, 법학과·사범대·인문대는 4학점, 정책·상경·사회·자연대는 희망자에 한하여 6학점을 이수토록 돼있던 것이 선택으로 바뀌면 복수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외대만의 특성을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이번 개정안은 필수를 최소화한다는 대원칙아래 작성됐다. 따라서 실용영어만 필수로 하고 현행 교양필수 및 필수선택인 국어작문·한국사영역·제2외국어영역·계열기초영역 등은 기존의 교양선택과목에 통합되고 명칭을 '교양'으로 바꾸었다.

현재 제2외국어는 상경·정책과학·자연·사회대가 선택으로 돼있고 법학·인문과학은 1학년 필수선택이다. 이는 단과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종전처럼 각 단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종전과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에는 지역학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역학 전문인력 편중해소 △학과 중심제 극복 △학제간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학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한 신규교수충원이 아닌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준공을 통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라는 대안이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 본교는 어느 대학보다 부전공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지역학은 문화전반이다. 예를 들면 어문계열 학과의 경우는 자신의 전공인 어학을 바탕으로 경제나 역사, 국제정치 등을 부전공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역학이다. 본교는 지금까지 지역학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복수전공을 1학년 2학기때 신청하게 될 경우 인기학과 편중으로 비인기학과가 쇠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타학교가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한다. 반면 본교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소위 비인기학과에 대한 학교차원의 육성방안을 생각한다면 외대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교는 타대학에 없는 어문계열학과가 많기 때문이다.

-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대학당국은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자발적인 학습참여동기를 유도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개정안은 어떻게 확정되나

= 지난 18일(월)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단대별로 논의된 사항은 11월말까지 대학당국에 제출된다. 현재 실용영어와 교양학점은 내년부터 실시되고 전공·복수전공/자유선택/부전공의 학점은 9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곽근영 기자

비둘기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목포 향우회 합니다.
때: 9월 27일(화) 오후 6시
곳: 학생회관 등나무
회비: 만원+α
〈목포향우회〉

· 세종고 동문회 합시다
때: 9월 29일(금) 6시30분
곳: 건대역 자명
〈세종고 동문회〉

· 해운대고 동문회 합니다.
때: 9월 29일(금) 5시30분
곳: 학생회관
〈해운대고 동문회〉

· 대전 남학우들 모입시다.
때: 9월 26일(화)
곳: 노천극장 6시
*우천시도 강행
〈대전향우회〉

· 한마음 한마당 95학번 일본어과 동문회 합니다.
때:예술의 전당 오페라홀 컨벤션 센타
곳: 9월30일(토) 5시
〈일본어과 학생회〉

· 민족영회때 '빛모습'이 금요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 5시30분
곳: 도서관 4층 세미나실.
* 9월29일 상영작: 바그다드 카페
〈빛모습〉

· 샬롬에서 같이 정기 예배 드립시다.
때: 매주 금요일 5시30분
곳: 학생회관 한사랑
〈한사랑〉

· 제10회 과대항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과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학생회관 테니스부 411호
〈테니스부〉

· 모현 신문사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34·8812, 012·355·8959
〈모현 종합 신문사〉

· 매일 경제 신문사에 의뢰해서 제작한 시사상식백과와 면접가이드를 무인판매합니다.
시사상식백과: 2000원
면접가이드: 1000원
〈졸업준비 위원회〉

□ 찾습니다.

· 검은색 가죽지갑을 찾습니다. 운전면허, 현금카드, ID카드와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분은 꼭 영어과 95학번 김휴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처:015-119-9506

□ 축하합니다.

· 동구어대 노래패 '오장군'의 제3기 기장으로 선출된 이상택 학우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장군 일동〉

이문벌

□ 알립니다.

· 신문 방송학과 2학기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신방인 모두가 참석합시다.
때: 9월 26일(화) 늦은 6시.
곳: 대학원 건물 311호.
〈신문방송학과〉

· 통일 무역학과 95학번 MT갑니다.
때:29일(금)-30일(토)
곳: 강촌
회비: 만 오천원
〈무역학과〉

· 세화고 동문회 합시다.
때: 9월 29일(금) 오후5시
곳: 본관 앞
〈세화고 동문회〉

· 터어키어 하루술집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때: 9월 26일(화)
곳: 보스톤
터어키 특선요리 코프테를 꼭 드시러 오세요.
〈터어키어과〉

· 아랍어과 30주년 종합예술제 합니다.
기간: 26일(월) 30일(토)
목적: 아랍을 사랑하는 모든이의 하나됨을 위해.
〈아랍어과〉

· 적성검사 합시다.
때: 9월 26일(화) 3시.
곳: 학생회관 생활 상담연구소
〈생활 상담 연구소〉

· 형법 모의 재판 합니다.
주제 : 동성동본 금혼제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때: 9월 28일(목) 5시
곳: 대강당
〈법과대 공법학회〉

□ 축하합니다.

· 지난 9월 24일은 명선이가 귀 빠진 날입니다.
명선아 생일축하해
〈관현악반〉

'비들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서울, 제2차 전학대회 열려

대표자 교양이 큰 관건으로 남아

학생회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장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20일(수)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대표자 총 2백10명 중 1백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선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 △5·18 학살자 처벌투쟁 △95 세민제 △학술제 △학자 방향 △총학생회 결산 보고 △모범단위 시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상반기 평가는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서울과 용인간 단결의 폭을 넓혔다 △새로운 체계인 전학대회를 건설해 회체계를 정비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여량 측적에 초점을 맞췄다 △학자 정세에서 결사적인 투쟁으로 이후 투쟁의 근거를 남겼다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한편 한계로는 △기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미비했다 등을 지적했다.

○…하반기 사업논의는 기조와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기조로는 △1학기 학자의 성과를 이어가며 학교의 제반모순을 하나하나 해결해 96년 학생회의 토대를 건설한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대중적 참여공간을 확보하고 1회성 소모적 행사를 지양해 사람을 남기는데 총력을 다한다 △정치정세의 대응력을 긴장성있게 높여내고 일꾼들의 해설능력을 고양시키는 실천투쟁을 조직한다 △각 단위의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마련한다 등이 결정됐다. 정세 전망은 △학내정세는 각급단위 작은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며 96년 학생회 건설시기에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탄압하는 많은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다 △정치정세는 14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96년 총선을 내다보며 각자 저마다의 선심성 공세와 실리 추구를 위한 야합과 대결이 교차될 것이다.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특별법제정이 하반기 최대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등이 논의됐다.

○…제2차 전학대회는 2학기들어 바뀐 대표자 교양이 관건으로 남았다. 또한 내용적 강화보다는 성사 자체가 큰 의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정책국장 방학진(법·법학 4)군은 "2학기 들어 바뀐 대표자들은 96년 학생회 건설의 주체들이다"라며 "대표자를 교양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라고 밝혔다.

1113번 용인캠퍼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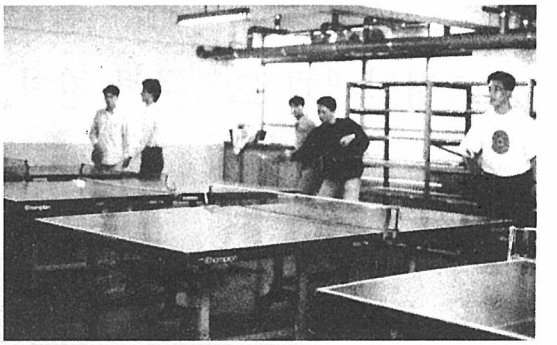
동서울 직행버스 배차시간 늘어

직행좌석버스 1113번이 지난 21일(목) 오전부터 용인캠퍼스까지 노선이 연장됐다. 반면, 1113번 노선연장으로 동서울 직행버스 배차시간이 늘어났다.

다음은 운행시간표이다

(단 이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외대출발〉			〈동서울 출발〉		
05:40(30)	10:52	16:55	06:50	12:17	18:18
05:50	11:09	17:08	07:05	12:34	18:33
06:05	11:25	17:23	07:20	12:50	18:48
06:20	11:42	17:38	07:35	13:07	19:03
06:30	11:58	17:53	07:55	13:23	19:18
06:45	12:15	18:08	08:05	13:40	19:23
06:55	12:31	18:23	08:15	13:56	19:48
07:05	12:48	18:38	08:25	14:13	20:03
07:15	13:04	18:53	08:35	14:29	20:18
07:25	13:21	19:08	08:55	14:46	20:30
07:35	13:27	19:23	09:10	15:02	20:43
07:50	13:54	19:38	09:25	15:19	20:55
08:05	14:10	19:53	09:40	15:35	21:09
08:20	14:27	20:05	09:55	15:52	21:22
08:40	14:43	20:17	10:10	16:08	21:35
08:57	15:00	20:29	10:22	16:25	21:48
09:14	15:16	20:41	10:39	16:41	22:01
09:31	15:33	20:55	10:56	16:58	22:14
09:46	15:49	21:10	11:11	17:14	22:27
10:03	16:06	21:25(30)	11:28	17:31	22:40
10:19	16:22		11:44	17:47	
10:36	16:39		12:01	18:03	



학내 체육공간 부족으로 인해 '여학생 탈의실'이 남녀 학생이 같이 이용하는 탁구장과 한 공간에 있다. 여학생 탈의공간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처사에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유정 기자

서울총학, 본보 설문조사 실시

학보의 주인은 1만 3천 외대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1일(월)부터 일주일간 게시판을 이용해 '외대학보 편집자율권 마찰'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문항당 2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본보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설문 결과 지난학기 마찰에 74%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당국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78%가 부당하다라는 답변을 내렸다. 자기자신과 외대학보의 편집자율권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밀접하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학기 개강호 발행으로 표면으론 일단락된 듯한 외대학보 편집자율권문제가 주간교수와 기자들 내부의 구두약속에 의해 학보가 정상화된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학생들은 25%가 '편집자율권 보장이 확실치 않아 회의적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외대학보 문제는 현 대학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외대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 1년동안 7명의 기자가 징계를 당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증명되는 대학 언론의 자유는 학보의 주인은 1만 3천 외대인이기에 외대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문제이다.

〈외대학보 설문 문항 및 분석〉

1.당신은 지난 1학기말 외대학보 학생기자들이 발행한 호외'외대'와 관련해 학교당국이 징계처분(2명 무기정학, 유기정학 8주 2명)을 내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징계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23%
②대충 짐작으로 징계사유를 알고 있다 28%
③징계사실은 알고 있다 23%
④전혀 모른다 26%

2.외대학보 편집자율권과 당신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상관없다 9%
②보통이다 19%
③밀접하다 39%
④아주 밀접하다 25%

3.당신은 외대학보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①학생기자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17%
②서명이나 기금마련에 참가한다 19%
③학생기자들의 유인물이나 호외를 관심있게 본다 54%.
④지지는 보내지만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다 10%.

4.지난 9월 11일(월) 학생기자들과 주간교수는 신문정상 발행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외대학보 편집자율권 마찰이 일단락 됐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①일단 학보정상화에 환영한다 10%
②편집자율권 보장이 확실치 않아 회의적이다 25%
③더 강한 요구를 해야 한다 24%
④징계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 51%

5.당신은 외대학보의 주인이라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48%
②아니다 10%
③생각해본 적 없다 32 %
④기타 10%

안총장, 인천지역 학부모간담회

외대발전계획을 알려내고, 96년 입시요강을 설명하는 안병만 총장 학부모간담회와 입시설명회가 방학중 실시되었던 지방대 도시 순회간담회 이후 처음으로 22일(금) 인천지역에서 열렸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안총장은 학교발전계획으로 △외국학중합연구센터 △통역대학원 증축 △신연구강의동 착공 △국책대학추진등을 학부모간담회때 설명했고, 질의·응답시의 순서가 진행됐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우수신입생 유치홍보를 펼쳤다.

이사람

□5·18 학살자 처벌촉구 단식중인 엄형식군을 만나

"실천하는 지식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전부터 5·18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런만큼 분노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중 자기가 하고 자하는 일을 하는 친구를 보며 나도 5·18을 위해 무언가 해야 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단식투쟁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동아리연합회장 엄형식(서양·불어 3)군의 말이다. 지난 18일(월)부터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5일동안 단식을 한 사람답지 않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 편안함까지 느껴졌다.

"몸이 힘든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 비쁜게 무심히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다함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힘들게 할뿐입니다"라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자기 감동을 느끼는 삶을 살고자 했으면 합니다"라고 학생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중 5·18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심각한 표정으로 "광주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0년 광주는 끝난 것이 아니라 90년대 또다른 광주의 모습으로 지금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518 문제는 확실히 매듭지어져야 합니다"라며 단식은 동맹휴업 찬반을 묻는 총투표 결과가 나올 27일(수)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제도(특검제)가 특정 보수야당에 의해 도입돼서는 안되며 진정으로 민중을 대변하는 이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라고 5·18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담부한다.

"이제는 5·18문제에 대해 매년 제기되는 식상해진 사안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며 학생들의 자각있는 실천을 요구했다.

"'실천하지 않는 지성인은 쓰레기와 같다'라는 말을 들고 부끄러워 할줄아는 그런 외대인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하는 엄군의 모습에서 실천하는 한 대학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김태형 기자

대학단신

용인, 과대항 테니스 대회 열릴 예정

용인캠퍼스 테니스부(ACE)가 주최하는 제10회 과대항 테니스 대회가 오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열린다. 접수장소는 오늘(25일)부터 27일(수)까지 학생회관 로비이다. 종목은 남·여 단식과 복식이고 접수비는 단식 2천원, 복식 4천원이다.

서울 중국어과 원어 이야기 대회 열려

서울캠퍼스 중국어과 학생회는 오는 11월 3일(금)에 제7회 중국어 원어이야기대회를 연다. 지난 18일(월)에서 오는 27일(금)까지 중국어과 과방에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대회는 중국어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외대생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이와관련 중국어과 과회장 황의삼(3)군은 "이 대회의 취지는 중국어 실력배양과 학생들의 단결이다"라고 밝혔다.

용인 검도부, 추계정기시범 열릴 예정

용인캠퍼스 검도부 추계정기시범이 오는 27일(수) 늦은 2시 학생회관앞에서 열린다. 이날은 약 20여명이 본국검법·대련 등이 선보이게 된다.

이 행사를 준비한 심규정 (자연·화학 2)군은 "검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용인, 유학 상담창구 개설

매주 목요일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로비에서는 시사 랭귀지 컨설팅(S·L·C)이 주관하는 유학상담실이 열리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이 자리는 유학방법·외국 대학 소개 등 유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L·C 실장 한승옥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지역 미식축구대회

'95 추계 서울지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의 예선경기 중 본교 미식축구부 블랙나이츠(Black Knights)팀과 서울대의 그린테러즈(Green Terrors)팀과의 경기가 오는 24일(일) 3시 본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92년에 창단된 본교 미식축구부는 현재 서울 13개팀 중에서 통상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식축구부 주장 김승욱(서양·영어 2)군은 "역대 대회에서의 전적에 비해 설비 및 지원이 미비하다"라며 "대학당국이 에이치바(H-bar)와 야간조명을 설치해 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용인 영어과, 모교 방문의 날

용인캠퍼스 영어과 제1회 동문 모교방문의 날(Home Coming Day)이 오는 10월 1일(일) 대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자랑스런 영어과인 수상과 각 학회공연,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회장 김태형(3)군은 "이 기회가 동문회건설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여학생 취업특강 열려

여학생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학생 취업특강이 총여학생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지난 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열렸다.

첫날인 18일은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장재성씨의 '대기업과 호텔에 들어가려면', 19일(화)은 '외국인 회사 취업'을 주제로 한 이영숙 일본 이토추 상사이사의 강연이 있었다. 마지막날인 20일(수)은 아트 앤 컬쳐(Art and Culture) 케이블 방송 편성 제작본부장인 정 훈씨의 '신문, 방송계통의 취업'에 관한 자리가 마련됐다.

총동문회장기 쟁탈 배구대회 개최 돼

제10회 총동문회장기 쟁탈 교내 남녀배구대회 최종결승전이 지난 22일(금) 대운동장 옆 배구코트에서 열렸다.

경기결과 남자부 경영학과, 여자부 독일어교육학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영학과와 행정학과가 맞붙은 남자부 결승전에서 3:2로 경영학과가 승리했고 독교과는 아랍어과를 2:0으로 물리쳐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올스타팀과 배구반의 친선경기는 올스타팀이 2:1로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다.

최우수선수론 남자부 방영은 (상경·경영4)군을 뽑혔고 김운회(사범·독교1)양이 뽑혔다.

대회를 준비한 배구부회장 김용잡(서양·스칸디나비아어2)군은 "예상외로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좋았다"라며 "앞에서 도와준 총동문회 학생회 졸업선배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자아성장을 위한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1.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성격진단, 적합흥미, 가족개입, 적성진단)가 제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심리검사 종류
• 성격진단: 자신의 실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 MMPI: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대한 인성특성을 평가해 줍니다
• 가족개입: 가정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느낌과 생각을 알려줍니다.
• 적합흥미: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적 흥미분야를 알려줍니다.
• 적성진단: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학문분야, 직업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 심리검사 이용시간
• 적성검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30~12:00
• 기타심리검사: 월~금, 오전 10:00부터 오후 5:00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2.개인상담
보다 원만하고 대학생활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때때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진로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 정서장애, 이성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상담전문가와의 개인적 상담을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 상담방법: 전문가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며 각자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중심으로 1회 60분씩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1주일에 1~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 상 담 자: • 신경진(이론 상담부장, 상담심리전문가)
• 장미영(총학 상담부장, 상담심리사)
• 상담심리사-김혜경, 박교수
• 상담원-이혜숙, 유지희, 배혜수, 송주란, 조미영
• 개인상담 이용시간: 월~금, 오전 10 00~오후 5:00
• 장 소: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이문, 용인캠퍼스동일) 학생회관 2층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슴없이 연구소를 찾는 적극 심은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더욱 알차게 꾸며줄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잠재력 개발훈련 참가자 모집

자신감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탐색·인식·개발시켜 봅시다.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희대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 시: 10월 첫째주 부터(1회 2시간, 8주)
서울캠퍼스-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첫모임: 10월 5일)
용인캠퍼스-매주 수요일 오후2시~4시(첫모임: 10월 4일)
■장 소: 캠퍼스별 학생생활상담연구소(학생회관 2층)
■신청장소: 캠퍼스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민방위 일반교육 실시

'95년도 하반기 민방위 일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일 시: 1995. 9. 27(수) 14:00~18:00
2.장 소: 서울지교육원 210호(서울캠퍼스)
3.대 상: 서울캠퍼스에 편입된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후 5년차 이내인 대원
• (단, 화생방대원 제외)
4.복 장: 민방위복 또는 간소복
5.지참물: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995. 9.

서울캠퍼스 직장민방위대장

1996학년도
통역대학원 학생모집

1.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명
2.모집학과
가.한국어번역·통역부(2년제): 한영과·한불과·한독과·한노과·한서과 한중과·한일과·한아과
나.외국어번역·통역부(3년제): 한영불과·한영독과·한영노과·한영서과 한영중과·한영일과·한영아과
3.시험과목
가.1차시험: 공통영어·전공외국어
나.2차시험: 한국어·전공외국어 번역작문·구술시험
4.원서교부: 95. 10. 9(월) - 10. 25(수) 17:00까지
5.접 수: 95. 10. 19(목) - 10. 25(수) 17:00까지
통역대학원 설명회: 95. 10. 13(금) 15:00 대학원 105호
6.시험일시: 1995. 11. 4(토) 10:00부터
※ 본 대학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전문통역사와 다국적 국제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임.
※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963-0558, 961-4112/3〉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1호선 휘경역(외대앞) 하차〉

한국외국어대학교

의료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됩니다

피보험자의 의료비부담 완화와 의료보험의 실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하고,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를 시행코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보험을 95. 8. 4개정 공포되었읍니다.

요양급여기간이 210일로 연장됩니다

그동안 요양급여기간이 연간180일(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210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구분없이 모든 국민의 요양급여기간을 210일로 연장되었읍니다.
※ 요양급여기간 산정방법—입원일수+내원(외래)일수+투약일수(약국,한방포함)
-다만, 입원, 내원, 투약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로 산정
※ 요양급여기간 산정예외 제외되는 경우
-폐결핵 진료, 분만급여,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등

요양급여기간이 210일로 연장됩니다

65세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는 96. 1. 1부터 요양급여기간 제한을 없애 365일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읍니다.

본인부담금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큰 수술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그 일부를 보상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입고자함 마련하였읍니다.
• 시행시기, 기준금액 등은 시행령 개정 ○, 공포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강장수의 첫째비결은 규칙적 운동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노인건강관리법의 제정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신설 및 요양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인만큼 "건강한 장수"를 위하여 「규칙적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성 만성질환
노인은 활동량이 대폭 줄게 되는데, 이것이 질환발생 요인이 됩니다.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이 생깁니다.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쉽게 발병하여 치료가 어렵습니다.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회복지연이 오래 걸립니다.
○척추관절, 요통관절에 원치된 퇴행성변화가 옵니다.

노년기 운동의 필요성
질환에 걸린 노인은 더욱 출혈량이 적어지고 근육은 보다 위축해 기능이 가속적으로 퇴행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적응환의 사슬을 끊는 열쇠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 운동을 근육신백질의 상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를 보강하여 장애의 역동 움직임에 강력히 방장을 낳습니다.
○폐활량이 커져 많은 폐포에서 호흡하게 하여, 비만증을 예방합니다.
○암을 잘도록 하여 신체의 저출력과 저항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 당당하게 물리서키고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식과 함께 정신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노년기 운동요령
○의사의 진단과 권유에 따라 적정량 프로그램과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운동시간과 강도는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맨손체조, 산책, 조깅, 수영, 가벼운 등산, 줄넘, 낚시, 정원가꾸기, 사회봉사활동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전 가벼운 준비기와 끝내 뒤의 정리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중에 자신의 신체상태를 항시 유의하여 가슴통증, 호흡곤란, 관절통, 근육경련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제공

□ 러시아 야쿠치아 공화국을 다녀와서

고려인에게 모국문화 전파, 숙연한 마음

지난 여름, 쿠치아 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 공화국 수도인 야쿠츠크를 가게 되었다. 이곳 정부에서 세운 사하한국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1년간 가르쳐 주는 일이 주 목적이었다.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가르쳐 주는 입장으로 위치가 바뀐 셈이다. 노어를 전공하고 있는 터라 오래전부터 러시아를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에선 야단들이었다. 이곳 야쿠치아는 언어연수 내지는 유학목적으로 떠나는 모스크바나 뻬쩨르부르그와 달리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부족하나마 우리 글과 우리 문화를 2억만리 낯선 땅에 전하며 민간 외교인으로 활동해 보는 것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란 생각됐기 때문이다. 우린 여름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8월 17일(94년) 야쿠츠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4시간 후 불안했던 마음은 깨끗이 씻어졌다. 공항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우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이렇게 야쿠츠크에서의 삶은 시작되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그곳의 날씨는 이미 그 빛을 잃어 가고 있는 백야와 더불어 장관을 이루었다.

드디어 9월 1일, 사하한국학교(야쿠치아 원주민 말)가 이곳 정부 시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현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이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서 첫회, 첫문을 열었다. 러시아에서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시작된다. 우리처럼 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 가을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은 우리 말로 '배움의 날'이라는 명칭이 붙은 하나의 큰 축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사하한국학교는 총 학생수 1백46명의 작은 학교다. 학생들은 고려인 15%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인과 야쿠치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곳에 사는 고려인들 모두가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알지 못했다. 즉, 고려인 제 1세대에게는 모국어가 조금은 남아 있지만 이들의 후손들은 말과 문화를 잃은 채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과 수업을 하며 잊혀져 가는 우리 것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고려인과 이들의 어린 자녀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잊혀져 가는 모국의 문화를 전하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 앞에 마음이 숙연해 지기도 했다.

시간은 지났고 우린 예상했던 대로 문화, 생활습관 및 풍습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 온 까닭에 발생하는 커다란 의견상의 대립이라는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부딪히며 민간 외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응해 갔다.

10월 5일 첫눈이 내렸다. 말로만 듣던 야쿠치아의 추위가 시작된 것이다. 기온은 점차 떨어졌고 영하 50도에서 60도를 오가는 혹한 속에서 아침, 저녁 학교를 걸어서 오가는 일은 야쿠츠크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한국어 자료 및 문화자료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은 많았지만 최선을 다 하는 가운데 수업은 정상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학부모 만름이나 이곳의 학부모들 또한 교육열이 높았다. 학생들도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말과 문화수업에 있어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학기가 진행되자 교육적인 무경험에서 오는 어려움과 학생들 사이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일련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현지 시교육위원회와 같이 일하는 현지 동료 선생님들의 커다란 배려와 도움으로 마지막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 무사히 학교 일을 마칠 수가 있었다. 특히 5월 초(95년) 정신적 ·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을 무렵 지금까지 사하한국학교와의 관계가 이어져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하한국학교와 우리들을 지원해 주신 노어과 강덕수 교수님의 현지 방문은 이곳 정부 시교육위원회와 사하한국학교, 우리 학생들과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떠나오기 전 날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눈물과 아쉬움 속에 송별회가 열렸다. 모두 울었다. 우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지난 8월 10일 현지 정부측과 안녕만 총장의 배려로 이뤄진 2주일 간의 한국 견학을 마치고 시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야쿠츠크로 돌아갔다. 야쿠츠크에서 아이들과의 생활은 나에게 너무도 큰 삶의 경험과 교훈을 주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공항 출구를 빠져 나가던 시랑하는 어린 학생들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이 병 조
〈서학 · 노어 3〉

□ 매체비평 - 드라마 이야기

부유층의 부를 뽐내는 경연장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TV만큼 영향력 큰 매체는 없다. 어떤 학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 TV 앞에 앉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매체가 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TV의 질은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가?

과거 정부 여당의 마이크 역할을 하던 TV가 소위 문민시대를 맞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모하였는가? 다른 부문은 접어두고 오락부문 특히 드라마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과거 KBS, MBC 두개 방송사가 경쟁하던 시대를 지나 민영방송 SBS가 설립되고 올해는 드디어 CA TV가 개국하였다. 각 방송사들은 치열한 경쟁체제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 시간대의 드라마들은 그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달콤하고 감상적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대중의 속성에 영합하여 마치 경쟁이나 하듯 저질 드라마를 양산해내고 있다.

특히 SBS의 새 미니시리즈 '체즈'는 드라마의 수준성 자체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면 소재의 다양성을 이룬 듯 하나 그안을 들여다 보면 작가와 연출자의 공공에 대한 윤리의식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다.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룬 것 까지는 좋았으나 그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일반 시청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층이 등장인물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하고 무지비한 폭력과 SEX의 상품화를 포장하고 있다. 또 등장인물면에서도 연기에 아직 미숙한, 외모에 중점을 둔 신인들의 캐스팅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대의 스타(?) 최진실씨를 또 다른 한 축으로 내세워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인물들간의 이질감을 심화시켜 어색함을 한층 더 하고 있다. 화면 구성면에 있어서도 SBS방송의 전반적인 경향이지만 일본 상업방송의 카메라 워킹을 그대로 모방한 타이트한 샷과 원색의 색조, 빠른 커팅으로 시청자들을 긴장시키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여과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현재 각 방송사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는 부유층의 사치 · 소비문화만을 경쟁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이런 경향들은 비단 SBS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을 모방한 SBS의 파격을 기존 방송사들이 그대로 모방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의 다양성이나 파격성은 꼭 이런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다.

영화 '서편제'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TV에서도 이런 식의 성공을 못하리란 법은 없다. 또 소재의 다양성은 청소년 드라마 '사춘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어릴적 겪었을 만한 소재를 솔직담백하게 담아나가고 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사람이나 성 상품화로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휴머니티와 새로운 작가 발굴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공공의 전파를 국민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송인들의 책무일 것이다.

박 정 남
〈서학 · 헝가리어 3〉

□ 서평- '축소 지향의 일본인'

말 많은 일본인의 정신문화 분석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어령씨가 1982년에 일본에서 간행한 '축소 지향의 일본인'은 저자의 취지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이 누구였던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용기를 갖고 일본인을 떳떳히 바라보는 밝은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한국어판으로 지난 94년에 출간 되었다.

일본 각료들의 계속되는 망언, 교과서 왜곡사건 등 우리의 울분을 자극하는 그들의 정신문화의 기저를 심도깊게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이미 지명한 루이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 등의 일본 언론 중에서 최근 일본인들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이라고 격찬 할 정도로 '축소'의 의미를 통해 실로 많은 것을 일본인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은 일본문화 인식의 출발점이다. 재미있는 예로 우주인이 지구의 각 국민성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지구인이 아직 본 일이 없는 물체를 길 한복판에 떨어뜨려 감시해 보면, 프랑스인들은 미술 · 패션의 천재를 낳은 국민답게 그 물체를 줍는 순간 눈앞에 갖다 대고 이구석 저구석 살펴 볼 것이다. 반대로 귀로 가져가 흔들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베토벤을 낳은 독일인이요, 투우의 나라 스페인은 두드려 빠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흔들어 보거나 부숴서 분해해 보지 않고 당장 그것과 똑같은 것을 흉내내어 만들어 볼 것이다. 그것도 같은 크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화 하여 더욱 정교하게 수십분의 일로 축소해 손아귀에 쏙들어 가도록 만들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는 우리가 일본의 국민성을 어느정도 간파하기에 충분하리라고 본다.

제 2장은 '축소지향'의 여섯가지 모형을 예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3과 4장에서는 자연물과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축소문화, 제5장은 산업, 끝으로 제6장은 '확대지향'의 문화와 오늘날의 일본을 지적하고 있다.

각 장마다 저자의 탁월한 문화적 인식은 일본인에 대한 우리의 지적수준을 교차원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 책과 아울러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라는 책이 출간되어 전권에서 못다한 저자의 논평을 접해 보는 것도 독자에게는 커다란 만족을 줄 것이다.

"일본시계는 한국시계보다 항상 몇 박자 느리다. 그것은 한국시계가 '똑딱똑딱'하고 가는것에 비해 일본의 그것은 '딱이요 딱이요'하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우스갯 소리에 반해 어디까지나 일본은 우리 보다는 선진화 되어 있다. 비단 과거 역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 대는 자세는 우리에게 퇴보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진정으로 일본을, 일본문화를 접해 보는 것이 참으로 전진하는 길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저자의 '한 · 일관계의' 방향론 제시를 끝으로 이 책의 서평을 마칠까 한다.

"문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것은 이웃으로 흘러가고 흘러오게 된다. 한 · 일문화 교류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인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떳떳이 발표하는 것이야 말로 건전한 한 · 일 관계 정립을 돕는 길이다."

서 두 만
〈동양 · 아랍어 4〉

파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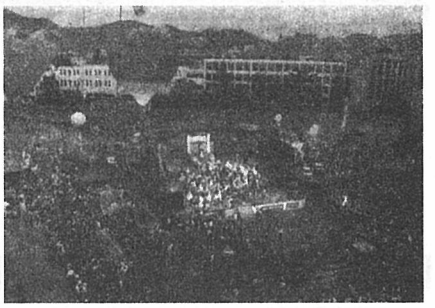
막상 막하

각과의 이름을 걸고 복학생과 현역들이 어울려 혼신을 다해 코트를 누비고 있다.

지난 18일(월)부터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교내 배구대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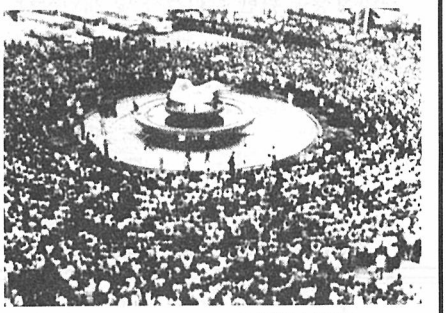
한승주 기자

5 · 18 끝없는 외침



그날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금남로, 도청앞 그 어떤 화려함으로 덮으려해도
80년 5월 광주의 기억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29, 30일은 동맹휴업등 '총궐기의 날'
5 · 18학살자 처벌 투쟁에 우리함께 나섭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